

해방기 이석훈 문학 연구 -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을 중심으로*

신 미 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기 이석훈의 문학을 살펴보는 연구의 일환으로 그가 1947년에 펴낸 문학감상독본을 살펴보고 해제하는 것이다. 이석훈이 이 책을 발간한 목적은 문학 지망자들에게 문학 안내서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석훈이 이 책을 발간한 이유는 일제 말기 자신의 친일의 이력을 속죄하고, 조선 문단의 발전을 위해 문장으로써 봉공하고 싶다는 반성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서 해방 직후부터 1946년까지 가명으로 살아갔지만, 본명을 찾은 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석훈의 삶의 자세를 느낄 수 있다.

책의 구성 방침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대 문학은 물론 고전, 심지어 외국 작품까지 가급적 전형이 될 만한 작품을 수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는 다양한 문학 갈래 아래 '대체적으로' 수준급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기령, 수필의 경우 서구적 교양과 동양적 교양이 문체에 끼치는 영향의 전범으로 김진섭과 이태준의 작품을 제시하였고, 고전에서는 한글 문학(특히 내간체문학)과 한문 문학(일기 및 기행문)의 전형으로서 「恨中錄」과 「渡江錄」을 제시하였으며, 소설에서는 홍명희, 최남선, 이광수의 작품은 물론, 김동인, 염상섭, 카프 작가들 그리고 역사소설 거의 작품 등을 골고루 수록하여 독본에 균형을 맞추었다. 또 하나의 방침은 독자의 감상을 돕기 위해 서제스천 정도의 해설을 붙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독본 분석을 통해 이석훈의 문학 감상안 및 해방기 그의 삶의 자세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3938)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강사

살펴볼 수 있었고, 당대 그의 숨겨진 정치관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이석훈이 펴낸 독본은 이후 '개정판'(1948)과 '추가 개정판'(1955)의 형태로 각각 재발간된다. '초판'에 수록된 작품 중 일부는 '개정판'에서 사라지는데 사라진 작품은 주로 월북한 문인들의 작품이다.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의 판본 비교 연구는 추후 과제이다.

주제어: 해방기, 문학감상독본(文學鑑賞讀本), 백민문화사(白民文化社), 결정판, 개정판, 추가 개정판, 문학지망자, 문장봉공(文章奉公), 전형(典型), 『문장(文章)』, 『경향신문(京鄕新聞)』, 「여적(餘滴)」, 정지용, 염상섭, 세익스 피어, 투르게네프, 톨스토이, 월북

목차

1. 서론
2. 간행 목적 및 배경
3. 책의 구성 및 차례
4. 결론을 대신하여

매사를 물론하고 어떤일을 하라하면 속속드리 행하니 알고
또한 정성껏 드리 덤벼야 한다.

(李箕永 「설」, 『朝光』,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1938. 5, 271면.)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기 이석훈(李石薰, 1907-1950?)의 문학을 살펴보는 연구의 일환으로, 이석훈이 발간한 문학감상독본을 살펴보고 해제하는 것이다. 이석훈은 해방 후 문학감상독본을 1947년 백민문화사에서 처음으로 간행하는데(결정판), 이후 이 책은 '개정판'과 '추가 개정판'의 형태로

재발간된다. ‘결정판’과 ‘개정판’은 한국 전쟁(1950. 6. 25.) 전에 발간되었고, ‘추가 개정판’은 한국 전쟁 후인 1955년 기존 제목을 많이 축약한 형태로 발간되었다. 세 권의 서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 1)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
(決定版), 초판; 서울: 白民文化社, 1947. 9. 1.(형태 사항 : 222p.;
19cm)¹⁾
재판; 1948. 7. 25.(형태 사항 : 222p.; 19cm)
3판; 1949. 4. 20.(형태 사항 : 222p.)²⁾

1) 이 외 리스(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는 이석훈이 1947년 서울 자유문학사에서 발간한 『(古今東西)文學 鑑賞 讀本 : 특히 문학 지망자를 위하여』라는 책도 검색되었다. (<http://www.riss.kr/link?id=M5919795>) 소장 기관은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꼭 한 곳인데, 필자 조사 결과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서가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필자 문의에 대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의 답신(2021. 7. 29) 및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분과 필자의 직접 통화에 의거)

그런데 필자는 ‘자유문학사’는 ‘백민문화사’의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측의 입력 오류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1947년 백민문화서관 문학감상독본에는 이 책이 ‘결정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자유문학서관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은 아래 두 책에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① 『(解放後四年間) 出版大鑑』(出版文化特輯), 서울: 朝鮮出版文化協會, 1948.

② 오영식 편저,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 1945-1950』, 초판; 서울: 소명출판, 2009.

상기 두 책에 의거하면, 자유문학사라는 출판사는 해방기 서울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단, 오영식 편저의 상기 책에서는 부산에 자유문학사라는 출판사가 있었고, 그 곳에서 간행한 책도 기재되어 있지만(202면, 단 한 권) 이석훈의 책은 아니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필자는 자유문학사 판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은 존재하지 않는, 백민문화사의 단순 입력 오류라고 생각한다. 책을 찾느라 고생하신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속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 3판은 필자 미검. 현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수장고에 있으나 현재 수장고 이동 문제로 2022년 6월까지 열람 금지.(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 학예연구사 문영은 씨와 필자의 전화 통화에 의거)

					
<p>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야-』(決定版), 초판; 서울: 白民文化社, 1947. 9. 1.</p> <p>[사진 출처] 앞표지 : e뮤지엄 누리집 www.emuseum.go.kr 판권장 : 아단문고 소장본 필자 촬영. 2012. 2. 25.</p>	<p>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야-』(決定版), 再版; 서울: 白民文化社, 1948. 7. 25.</p> <p>[사진 출처] 일본 니쇼가쿠사대학(二松学舎大学) 세리카와 테즈요(芹川哲世) 명예교수 소장본. 필자 촬영.</p>	<p>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야-』(決定版), 3판; 서울: 白民文化社, 1949. 4. 20.</p> <p>[사진 출처] 앞표지 : e뮤지엄 누리집 판권장 :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운영과 학예연구사 문영은 씨로부터 수령. 그런데 판권장에는 재판 날짜가 1948. 8. 1.로 되어 있음.</p>			

【사진 1】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야-』(決定版)의 초판, 재판, 3판 실물 사진(앞표지 및 판권장)

- 2) 李石薰 編, 『改訂版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야-』, 初版; 서울: 世文社書店, 1948. 1. 25.(필자 미검)
5판; 1952. 8. 20.(형태 사항 : 218p.; 19cm)
- 3) 李石薰 編著, 『文學과鑑賞』, 서울: 青春社, 1955. 1. 15.(형태 사항 : 238p.; 19cm)³⁾

이렇듯 이석훈의 문학감상독본은 ‘결정판’, ‘개정판’, ‘추가 개정판’이라는 세 판본을 지니고 있고 판본별로 수록 작품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비교 분석하여 시기별로 수록된 작품을 살펴보고 개정의 이유를

3) ‘추가 개정판’인 『文學과鑑賞』의 발행 주체는 이석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석훈은 한국 전쟁 발발 직후 피랍된 후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이다.(이석훈의 피랍 경위에 관해서는 신미삼, 「해방기 이석훈 연구」, 『인문연구』, 77권,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8, 138-140면 참고.) 『文學과鑑賞』을 발간하고 추가 개정한 주체는 ‘文藝硏究會’로 여겨진다.(李石薰 編著, 『文學과鑑賞』, 서울: 青春社, 1955, 238면 참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석훈이 이 책들을 발간한 목적과 배경을 통해서는 해방기를 살아가던 이석훈의 삶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고, 수록 작품과 그에 대한 이석훈의 감상을 통해서는 그의 문학 감상안과 식별안, 나아가 당대 시대상, 심지어 그의 정치관까지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이석훈의 문학감상독본 결정판을 대상으로 발간 동기와 의도, 구성과 체계, 수록 작품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 이를 통해 해방기를 살아가던 이석훈의 자세와 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에 관한 언급은 서승희가 한 바 있다.⁴⁾ 그는 1947년 백민문화사에서 출판한 문학감상독본(결정판)을 대상으로 책의 구성과 수록 작가 등을 언급하였는데, 분량상 오직 한 문단이고, 내용상으로도 극히 피상적이므로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의 본격적인 연구라고는 할 수 없다. 아마 이 논문은 해방기 이석훈 외 이무영, 정인택의 글쓰기 전략을 동시에 연구한 논문이었으므로,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에 많은 분량을 할애할 수 없었던 듯하다.

다음, 구자황 역시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을 언급한 바 있다.⁵⁾ 구자황은 근대를 보는 하나의 창(窓)으로 '독본'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물을 생산하였는데, 그 결과물들을 한 권으로 묶은 책에서 이석훈의 문학감상독본 역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의 '개정판'을 중심으로, 그것도 5판에 해당하는 세문사 1952년판을 중심으로 가법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세 군데의 출판사에서 '결정판'(1947), '개정판'(1948), '추가 개정판'(1955)이 각각 발간되었다. 하지만 그는 판본 비교를 놓쳐 '추가 개정판'인 청춘사판 『文學과鑑賞』은 전혀 언급하지 못

4) 서승희, 「국민문학 작가의 해방 이후 글쓰기 전략 연구-이무영, 이석훈, 정인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3, 한민족문화학회, 2013, 265~266면.

5) 구자황, 『근대 독본 문화사 연구』, 초판; 서울: 글누리, 2014, 228~232면.

했고, 각 판본별 수록 작품의 차이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못했다. 가령, 구자황은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 개정판을 텍스트로 삼은 탓에 개정판에 수록된 이석훈의 서설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간접 인용한다. “전자의 대표로는 육당 최남선의 글을, 후자의 대표로는 김진섭의 글을 뽑았다. 그리고 이 둘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고 판단한 박종화의 글도 신고 있다.”⁶⁾ 하지만 이 문장은 1947년 문학감상독본 결정판에서는 ‘육당 최남선’과 ‘박종화’ 대신 ‘민세 안재홍’과 ‘상허 이태준’으로 되어 있다. 결정판과 개정판의 사이에는 ‘월북’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고 결국 월북 작가가 모두 배제된 것이 개정판 문학감상독본이었는데(물론 안재홍은 6.25 전쟁 발발 이후 납북됨.⁷⁾), 구자황은 판본 비교를 놓친 탓에 결정판과 개정판의 차이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직 개정판을 중심으로 작품의 장르별 편수를 헤아리는 등 짜임새를 살펴보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 역시 5년 전 이석훈의 해방기 삶을 연구하는 논문에서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을 언급한 바 있다.⁸⁾ 하지만 당시 논문의 초점은 이석훈의 해방기 ‘삶’이었던 만큼 작품 활동에 관해서는 한 장(chapter) 밖에 할애할 수 없었고, 이 중 문학감상독본은 더욱 간단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문학감상독본의 ‘결정판’, ‘개정판’, ‘추가 개정판’의 존재를 언급하고 간단한 서지조사 결과 또한 언급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지면상 착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고에서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 판본 비교 연구’의 첫 작업으로 우선 ‘결정판’을 텍스트로 삼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해제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개정판’과 ‘추가 개정판’ 비교 연구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독본과 관련한 학계의 축적된 연구 성과에 하나의 보탬이 되기를

6) 위의 책, 230면.

7) 이정식, 「안재홍(安在鴻)」,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1995,

<http://encykorea.aks.ac.kr/>, 2021. 11. 21. 검색.

8) 신미삼, 「해방기 이석훈 연구」, 153면.

희망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2. 간행 목적 및 배경

1947년 9월 1일, 백민문화사에서 간행한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特히文學志望者를위하야—』(결정판)의 간행 목적은 우선 책의 부제목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석훈의 서문(「文學鑑賞序說—序文에代하여」)에는 이것이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나 있다. 즉, “이冊은, 一般의 教養을 도우기爲하여 特히 文學에뜻든사람에게 文學案内書로의 用意로써 꾸민것”이다.(6면) 문학 작품 감상의 의의로부터 서설을 시작한 그는 현대 인일수록 높은 정신 생활을 희구할 것이므로 문학 감상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인데, 특히 문학자나 작가, 시인이 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라면 선진(先進)의 작품을 부지런히 애독하고 감상해야 하므로, 그들을 위한 문학 안내 책자를 위해 이 책을 간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이석훈의 반성, 나아가 문장봉공을 통해 사죄하려는 이석훈의 의지 등이 적극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적 같이 맞이한 해방 ‘직후’, 조선에서는 ‘조선어’로 된 읽을 거리가 부족했다. 읽은 거리는커녕 일제 말기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인해 나이 어린 사람은 물론 청년들까지도 조선어에 능수능란하지 못하여 해방 이후 조선어를 ‘급히 배우느라 야단’이었다. 이는 박완서(朴婉緒, 1931~2011)가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잘 증언하고 있다. 조선 밖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였는데 김만선(金萬善, 1915~?)은 소설 「한글 강습회」에서 해방 직후 중국 장춘(長春, 일제강점기에는 만주국의 수도新京(新京))에서의 조선인들의 형편없는 조선어 수준을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다. “장춘시에는 너무나 일본말에만 능숙한 청년들이 흔한 현상인지

라”, “에’와 ‘의’를 구별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고, 심지어 “장춘시의 조선 사람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대한민단(大韓民團)이나 각 청년단체에서 내다붙이는 광고문은 물론, 어떤 청년단체에선 선전문이나 강령에까지 철자가 뒤죽박죽인 데다 글로써는 줄하기 짝이 없”는 문서를 발간하였던 것이다.⁹⁾

그러므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어를 공용어로 배운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해방 후 조선어 습득은 긴요한 문제였는데, 특히 문학을 지망하는 사람이라면 이는 더욱 절실했다. 이제는 조선어로만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조선어 실력은 매우 빈약했던 것이다. 가령, 「피아노」시로 유명한 전봉건(全鳳健, 1928~1988)은 해방 직후 자신의 조선어 실력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상략) 나의 시문학의 출발은 일본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나의 첫 작품은 일본어로 씌어졌던 것이다. (중략)

해방이 되자 나는 나의 모국어로 시를 써야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의 국어 실력은 겨우 「가가겨겨」를 간신히 판독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나는 당신에게로 간다」 하는 글이면 「나 는 당 신 에 게 로 간 다」고 이렇게 한자 한자씩 띄어 읽고 나서야 그 전체의 의미를 종합 이해하는 형편이었다.¹⁰⁾

전봉건의 고백은 전봉건과 비슷한 시기 혹은 앞뒤 시기에 태어난 동시대 조선 지식인들의 조선어 실력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석훈은 선배 문인이자 일제강점기 조선어로도 작품 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문학을 지망하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좋은 조선글을 많이 소개하고 읽히려는 의도에서 “정수’라고 여기거나 ‘모범’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는 글을 뽑거

9) 김만선, 「한글 강습회」, 『압록강』, 초판: 서울: 깊은샘, 1989, 136~137면.

10) 全鳳健, 「時作 노트」, 『韓國戰後問題詩集』, 初版: 서울: 新丘文化社, 1961, 403면.

나 지어서 묶어 놓은 책”¹¹⁾인 독본을 발간한 것이다. 이석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좋은 文學作品을 選擇하여 再讀三讀 乃至는 百讀도 오히려 不足타하게 읽고 또 읽는것이 좋다. 讀書百遍에 뜻이저절로 이른다 함과같이 두번 세번 거듭읽을수록 그作品의 眞味를 알게되는것이다. 그만치더깊이 人生을 體得하는셈이된다.¹²⁾

이석훈이 만약 한글을 가르칠 수 있었다면 김만선의 「한글 강습회」의 주인공 ‘원식’과 같이 한글 강습회를 개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석훈은 조선어 실력이 부족한 문학 지망생들에게 선배 문인들의 좋은 글을 묶은 독본을 발간함으로써 그들의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랐다. 당시 이석훈의 심정은 그러하였다. 그러하였다는 것은 해방된 조국에서 그는 문필로서 보국하고 싶다는 결심이 있었고 문학감상독본은 그 연장선상에서 발간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말이다.

해방 직후부터 1947년 문학감상독본을 발간하기 전까지, 약 2년간의 이석훈의 생활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 후 장춘에서 돌아온 이석훈은 일제강점기 자신의 친일의 이력으로 인해 칩거에 들어갔다. 자신은 “精神的犯罪者”라는 생각에, “모든 行列, 모든 集會에 나가기를 주저했”는데, “한푼의 貯蓄없고, 달리 別다른 재주도 없는터이라, 結局은 假名의 탈을쓰고, 賣文行爲를” 하게 된다. 그런데 가명으로 글쓰기를 하던 당시, 이석훈이 “假名으로 三八以北을 욕하는글을, 어떤 黃色誌에 팔아먹었다”는, (중략) 風說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와 친분이 있던 김송

11) 박태원 편, 『中等文範』(正音社, 1946), 구자황·문혜윤 편, 『中等文範』, 도서출판 경진, 2015, 5면.

12) 李石薰, 「文學鑑賞序說—序文에代하여」,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초판; 서울: 白民文化社, 1947, 6면.

(金松, 1909~1988)과 안회남(安懷南, 1909~?)은 “『李兄이 본명을 얹내놓구, 뒤루 슬금슬금 글을쓰니깐, 그런 疑心두 받게되는거요』하며, 正堂堂히 文學活動할 것을, 忠告해”준다. 여기에 힘입어 이석훈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본명으로서의 글쓰기를 선언하는 글, 「告白」(『白民』, 1947. 1)을 발표하게 된다. 이 글은 이석훈이 해방 후 본명으로 발표한 최초의 글이다. “1947년 새해를 맞”아 작성한 이 글에서 이석훈은 “새해부터는 나도 묵은탈을 벗어버리고, 文學活動을 하여보”겠다고 다짐한다. “새뜻, 새맘으로, 지난날에 뚫어진 구역을, 성실하게 謙虛하게 메우기에, 정성을 기우”리겠다는 것이다.¹³⁾

그렇다면 본명으로서의 글쓰기를 재개하며 시작하겠다고 한 ‘문학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석훈이 「告白」 이후 본명으로 발표한 글을 문학감상독본 발간 시점까지 한정하여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해방기 이석훈 작품 목록 일부

순번	발표년	작가명	작품명	발표지	비고	장르
1	1947. 1.	李石薰	告白	白民	白民文化社	수필
2	1947. 3. 15.	보리스·고르바-또프 작 李石薰 譯	『降伏없는백성』上		創人社	번역소설
3	1947. 6. 30.	톨스토이 지음 이석훈 번역	『復活』上		大成出版社	”
4	1947. 9. 1.	李石薰	『殉國革命家列傳』		朝鮮出版社	전기문
5	”	李石薰 編	文學鑑賞序說 -序文에代하여-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	白民文化社. 決定版	평문

13) 이상 본 단락의 인용은 모두 李石薰, 「告白」, 『白民』, 서울: 白民文化社, 1947. 1, 45~47면 참고.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석훈은 「告白」 이후 번역서 두 권과 단행본 두 권을 발간했다. 발표년을 중심으로 봤을 때 1947년 1월부터 9월 까지 9개월간의 작업이다. 생계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가 얼마나 정력적으로 본명으로의 글쓰기에 임했는가를 알 수 있다. 특히 단행본 두 권은 발간 시기가 연월일까지 동일한데, 한 권은 단독 저서인 『殉國革命家列傳』이고, 한 권은 편저인 문학감상독본이다. 『殉國革命家列傳』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一生을 民族解放에 바치고, 이미 昇華하신 先烈들”(3면)을 기리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序文」에서 이석훈은 “先烈들이 生命을걸고 日帝와 싸운反面에, 내自身 安易한 生涯에 執着한것을 反省하니, 참으로 汗顔을 이기지못가(sic 하)겠으며, 애오라지 微々한 文章奉公의 길로나마, 先烈의 英靈앞에 謝過하는것밖에 道理가 없”(3면)다고 하였다. 글쓰기 재주밖에 없는 이석훈으로서 ‘문장봉공’이야말로 독립운동가들의 영령에 사과하며 “日帝時代に 소위 『國民(sic 民)文學』의 第一線에서 『活躍』한”¹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메꿀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했던 듯하다.

『殉國革命家列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석훈의 문장봉공 자세는 『殉國革命家列傳』과 동일한 연월일에 발간한 문학감상독본에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이 책을 발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가명으로 더욱 일찍이, 해방 후 죽출했던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들과 발을 맞추어 발간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석훈이 해방된 조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은 후, 앞으로는 ‘새뜻, 새맘으로, 지난날에 뚫어진 구역을, 성실하게 겸허하게 메우기에, 정성을 기우리겠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해 본다면, 『殉國革命家列傳』은 「告白」에 이은 또 한 번의 사죄와 반성이자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기록으로써 남긴 문장봉공이라고 할 수 있고, 문학감상독본은 선배 문인으로서 문학 지망생들에게 좋은 글을 안내하고 읽혀 조선 문단의 발전과 대중 교양의 증진을 위한 문장봉공이었다고 생각한다.

14) 위의 글, 45면.

3. 책의 구성 및 차례

이석훈은 책의 구성을 “昨今 簇出하는「文藝讀本」과는 若干 選을 달리 하였다.” 그의 구성 전략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現代文, 古典을 통하여 外國의 名品까지 모든 種類의 作品에 걸쳐서 대개 典型이 될 만하게 蒐錄”하는 것이다.¹⁵⁾ 이는 다른 독본들과 차이를 두기 위한 전략이었다. 해방 직후에는 조선 내 인쇄소 중 우리말 인쇄 능력을 가진 인쇄소가 겨우 10개 내외에 불과하여, “發刊되는 書籍마다 發刊만 되면 곧 讀者손으로 넘어”갔지만, 출판사와 잡지사 그리고 신문사가 많이 죽출되면서부터는 “最高調로 自由競爭을 보게 되”어 출판사와 잡지사는 불경기를 맞게 되었다.¹⁶⁾ 그러므로 이석훈은 여타 독본과는 다른 구성으로 편집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작품을 우선 문학과 비문학으로 대별한 후, 문학 아래에는 시, 소설, 수필, 희곡, 고전 문학을 위치시키고 비문학에는 평론을 위치시켰다. 특히 문학 분야에는 서유럽과 러시아에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또한 수록하여 문학 지망생들에게 세계 문학 또한 소개하였다.

둘째, “讀者의 鑑賞을 도유기위해 極히 서제스천程度로 解説을 붙”였다. 서제스천(suggestion) 형식으로 극히 짧게 해설을 붙인 이유는 “三者의 助力을 많이 빌지 않으며 스스로 再讀三讀하여 自己自身の 主觀으로써 作品을 客觀함이 緊要”하고 “그러함이 곧 이른바 鑑賞”이기 때문이다.¹⁷⁾ 그러므로 이석훈은 수록 작품마다 말미에 [주석]과 [감상]을 두어, [주석]에는 본문 내 단어 뜻풀이와 간단한 ‘작가 소개’를, [감상]에는 극히 짧은 자신의 해설을 붙였다. [주석]의 ‘작가 소개’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독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감상]을 통해서도 역으로 이석훈의 문학 감상안과 식별안, 나아가 그의 정치관까지 간접적으

15) 이상 인용은 각각 李石薰, 「文學鑑賞序說—序文에代하여」, 李石薰 編, 앞의 책, 6면.

16) 崔映海, 「出版界의 回顧와 展望」, 『(解放後四年間) 出版大鑑』(出版文化特輯), 5면.

17) 인용은 모두 李石薰, 「文學鑑賞序說—序文에代하여」, 李石薰 編, 앞의 책, 6-7면.

로 파악할 수 있어 작가 연구에 도움이 된다.

한편, ‘결정판’ 독본의 구체적인 차례는 아래 표와 같다. ‘결정판’, ‘개정판’, ‘추가 개정판’의 목차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세 판본의 목차를 나란히 제시해 보았다.

【표 2】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 판본별 목차

형태	결정판	개정판	추가 개정판
서명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 特別文學志望者를 위하여—』(決定版), 초판; 서울: 白民文化社, 1947.	李石薰 編, 『改訂版 文學鑑賞讀本— 特別文學志望者를 위하여—』, 5版; 서울: 世文社書店, 1952. (※初版: 1948. 필자 미검)	李石薰 編著, 『文學과鑑賞』, 초판; 서울: 青春社, 1955. (李石薰 編, 『改訂版 文學鑑賞讀本— 特別文學志望者를 위하여—』, 의 重版 및 추가 개정)
	文學鑑賞序說 (5)	文學鑑賞序說 李石薰 (1)	文學鑑賞序說(한글대역어) 李石薰 (7)
	隨筆·紀行篇 文章私談(옛세이) 金晋燮 (10) 古韻(想筆) 李孝石 (12) 山精(隨筆) 李孝石 (16) 소리(小品) 崔貞熙 (18) 時事短評(新聞餘論) 廉尙燮 (23) 天陰의 遶歸島(紀行) 李現和 (26) 世界的偉觀인 三池美(紀行) 崔南源 (30)	隨筆·紀行篇 文章私談(옛세이) 金晋燮 (7) 날개(想筆) 李 箱 (9) 山精(隨筆) 李孝石 (16) 소리(小品) 崔貞熙 (18) 時事短評(新聞餘論) 廉尙燮 (22) 天陰의 遶歸島(紀行文) 李現和 (24) 世界的偉觀인 三池美(紀行文) 崔南源 (28)	隨筆·紀行篇 文章私談(옛세이) 金晋燮 (13) 山精(隨筆) 李孝石 (15) 소리(小品) 崔貞熙 (17) 時事短評(新聞餘論) 廉尙燮 (21) 初夜(長篇拔萃) 李現和 (23) 世界的偉觀인 三池美(紀行) 崔南源 (27) 祭室賦(隨筆) 李崇寧 (36) 抽籤(隨筆) 安壽吉 (41)
	小說·戲曲篇 山村(掌篇) 韓雪野 (42) 붉은산(短篇小說) 金東仁 (44) 가난한실(小品) 李箕永 (56) 初夜(長篇拔萃) 朴鍾和 (60) 林巨正傳(長篇拔萃) 洪命燮 (68)	小說·戲曲篇 붉은산(短篇) 金東仁 (39) 無明(中篇) 李光采 (49) 初夜(長篇拔萃) 朴鍾和 (57) 남사당(短篇) 金 松 (64) 生活의 破片(短篇) 朴榮准 (70)	小說·戲曲篇 날개(短篇拔萃) 李 箱 (47) 붉은산(短篇小說) 金東仁 (54) 無明(中篇拔萃) 春 風 (65) 初夜(長篇拔萃) 朴鍾和 (74) 남사당(短篇拔萃) 金 松 (81)
목차	웨니스의 商人(戲曲拔萃) W·웨이크스파(75) 無明(中篇拔萃) 春 風 (79)	웨니스의 商人(戲曲拔萃) W·웨이크스파(76)	웨니스의 商人(戲曲拔萃) W·웨이크스파(87) B女の 素顔(短篇拔萃) 李無現 (92)
	詩歌篇 故郷(詩) 鄭芝釵 (90) 비개인여름아침(短詩) 金堯燮 (92) 무지개(隨筆詩) 위-즈·위-스 (92) 개(散文詩) 무무게-네프 (94) 꽃다발(女流漢詩) 金岸曙 (97) 一許蘭雪軒外七人— (98) 民謠(자장노래外三篇) (102) 時調集(成三問外二十四首) (109)	詩歌篇 踏雪賦 金東鳴 (83) 비개인여름아침 金堯燮 (84) 五月의 아침 金永郎 (85) 虛(美童篇) 趙靈岩 (87) 무지개(隨筆詩) 위-즈·위-스 (89) 개(散文詩) 무무게-네프 (90) 꽃다발(朝鮮女流漢詩) 金岸曙 (93) 一許蘭雪軒外七人名詩— (93) 民謠(자장노래外三篇) (96) 詩調選集(成三問外二十四首) (102)	詩歌篇 一塵 吳桂淳(113) 踏雪賦 金東鳴(116) 비개인여름아침 金堯燮(117) 五月의 아침 金永郎(118) 무지개(隨筆詩) 위-즈·위-스(120) 개(散文詩) 무무게네프(122) 꽃다발(韓國女流漢詩) 金岸曙(124) 詩調選集(二十四篇) (128)
	評論篇 文章論(三則) 梁柱東(128) 遺言(節章) 오오구스트·로댕(132) 人生의 目的의 論文 틀스토이(136) 現代의 詩의 르네상스(詩論) 金起林(141)	評論部 詩와 言語 李熙昇(121) 文章論(三則) 梁柱東(125) 遺言(節章) 오오구스트·로댕(129) 人生의 目的의 論文 틀스토이(133) 現代의 詩의 무늬상스(詩論) 金起林(137)	評論篇 詩와 言語 李熙昇(143) 文章論(三則) 梁柱東(148) 遺言(節章) 오오구스트·로댕(152) 人生의 目的의 論文·拔萃 틀스토이(155) 現代의 詩의 르네상스(詩論·拔萃) 金起林(160)

叢知·行動과知性(評論) 俞鑽午(147)	叢知·行動과知性(評論) 俞鑽午(148)	叢知·行動과知性(評論·拔萃) 俞鑽午(166)
作家朴泰遠論(作家論) 安懷南(152)	近代性에對한一反省文學論 白 鐵(149)	藝術의本質 金泰午(171)
時調의數讀(時調詩學) 安自山(158)	藝術家의本質 金泰午(154)	生命의神祕 토마스·만(178)
新民主主義의及體理念(政治論) 安在燁(163)	作家論(作家崔泰遠論) 朴肯靛(161)	時調와數讀(時調詩學) 安自山(183)
詩調와數讀(詩調詩學) 安自山(166)	詩調와數讀(詩調詩學) 安自山(166)	
古典篇	古典篇	古典篇
恨中錄(古典歌曲·拔萃) 惠慶宮垺氏(171)	恨中錄(隨筆) 惠慶宮洪氏(172)	恨中錄(古典歌曲·拔萃) 惠慶宮垺氏(191)
渡江錄(日記文學) 朴趾源(181)	渡江錄(日記) 朴趾源(181)	渡江錄(日記文學) 朴趾源(200)
春香傳小說(拔萃) 作者未詳(189)	春香傳小說(拔萃) (189)	春香傳小說(拔萃) (208)
洪吉童傳小說(拔萃) 許筠(197)	洪吉童傳小說(拔萃) (196)	洪吉童傳小說(拔萃) 許筠(215)
靑山別曲(高麗歌詞) 解脫 金台俊(210)	靑山別曲(高麗歌詞) (207)	靑山別曲(高麗歌詞) (227)
鄭石歌(高麗歌詞) 解脫 金台俊(215)	鄭石歌(高麗歌詞) (212)	鄭石歌(高麗歌詞) (232)
토끼와상(歌諺) 解脫 李熙昇(220)	토끼와상(歌諺) (216)	토끼와상(歌諺) (236)

1) 隨筆·紀行篇

【표 3】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隨筆·紀行篇' 목차 및 저본 또는 첫 게재지

수록 작품명	작가명	저본 또는 첫 게재지	비고
文章私談(에세이)	金晋燮	金晋燮, 「文章私談」, 『文章』, 京城: 文章社, 1939. 2. (창간호)	발췌
古韻(想華)	李泰俊	李泰俊, 「古韻」, 『無序錄』, 京城: 博文書館, 1941.	전문
山精(隨筆)	李孝石	李孝石, 「山精」, 『文章』, 1939. 2.	발췌
소리(小品)	崔貞熙	崔貞熙, 「소리」, 『文章』, 1939. 2.	전문
時事短評(新聞餘滴) 冷淡한選舉 對日賠償要求 鐵道事故	廉尙燮	「餘滴」, 『京鄉新聞』, 1946. 11. 13. 「餘滴」, 『京鄉新聞』, 1946. 11. 15. 「餘滴」, 『京鄉新聞』, 1946. 11. 17.	전문 전문 전문
天險의遮歸島(紀行)	李殷相	李殷相, 「天險의遮歸島」, 『耽羅紀行 漢拏山』,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1937.	전문
世界的偉觀인三池美(紀行)	崔南善	崔南善, 「世界的偉觀인三池美」, 『白頭山觀參記』, 京城: 漢城圖書株式會社, 1927.	전문

수필·기행편에 수록된 작품은 총 7편이며, 필자가 조사한 각 작품의 저본 혹은 첫 게재지는 상기 표와 같다. ‘저본 또는 첫 게재지’ 난을 보면 『文章』 창간호에 수록되었던 3편의 수필이 앞 자리를 장식하고 있어 눈에 띈다. 『文章』에 수록되었던 작품들은 독본의 수필·기행편 외 소설편,

18) ‘干’는 ‘우’의 오식.

평론편, 고전편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이석훈은 『文章』을 조선 문학 전형들의 보고로 여겼던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소설가 이태준(李泰俊, 1904~?) 주간인 『文章』은 1939년 2월에 창간되어 1941년 4월에 폐간된 월간 문학 잡지로(1948년 10월 속간 후 제1호로 중간), 발간 기간은 짧았지만 일제강점기 『인문평론』과 함께 조선의 대표적인 문학지였다. 『文章』은 무엇보다도 전 문단인을 망라하였고(소설에 65명, 시에 46명, 시조에 10명, 희곡·시나리오에 8명, 수필에 183명, 평론에 59명 등장, 작품은 소설 162편, 시 180편, 시조 34편, 수필 183편, 희곡 6편, 시나리오 2편, 평론 119편 등), 순수문학을 지향하였으며, 국문학 고전 수록을 통해 민족문학유산의 옹호 전파, 동시에 서구 문화 도입, 국어국문학상에서의 논문 및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면에서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¹⁹⁾ 이렇듯 『文章』은 일제하 대표적인 문학지였으므로 이석훈은 이를 독본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필·기행편은 김진섭과 이태준의 두 작품을 앞뒤로 나란히 배치하면서 문을 연다. 두 작가의 작품을 나란히 배치한 이유는, 이석훈은 이 둘을 서구적 교양과 동양적 교양이 문체에 끼치는 영향의 전범으로 생각하였기에 문학 지망생들이 이 두 사람의 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은 문학 지망생을 위한 독본인 만큼 이석훈은 문체적 측면에도 상당한 신경을 기울여 다양한 문체를 가진 작품이 골고루 수록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筆者의 年代에 딸아, 漢文의 影響과, 歐羅巴의 文體의 影響을 볼수 있다는點을 參考로 指摘하여 두고자한다. 그의 顯著한實例로는, 漢文의 影響으로는 民世安在鴻氏의一文, 後者の 適例로는 金晋燮氏의 隨筆이다. 그러나 金晋燮氏와 비슷한(同)年代이면서도 오히려 漢文의 影響調를 가진 尙

19) 이상 『文章』에 관해서는 河東鎬, 「문장(文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6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433면 참고.

盧李泰俊氏같은例는, 結局 同時代이지만 하나는 西歐의教養의 所致오, 하나는 東洋의教養의 結果라고볼것이다.[밑줄—필자, 이하 상동]²⁰⁾

일본 호세이대학(法政大學) 문학부 독문과를 졸업한²¹⁾ 독문학자이자 수필가인 김진섭(1908~?)의 수필과, 고전에 조예가 깊었던 이태준의²²⁾ 수필은 서구적 교양과 동양적 교양에 영향을 받은 두 저자의 문체를 각각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김진섭은 최재서(崔載瑞, 1908~1964)가 펴낸 『海外 抒情詩集』(人文社, 1938)에서 독일 편 시들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이석훈의 [감상을 보면 이석훈은 김진섭을 「歐羅巴의엣세이의 스타일을朝鮮에 試驗하는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김진섭의 「文章私談」을 통해서는 「文脈이길고 論理的이요, 主知的」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12면) 그리고 전문을 다 수록한 이태준의 「古翫」에 대해서는 「墨畫같은 글이다.」라고 평했다. 이는 「筆者의 素質에서 오는 그림자」라며, 독자들에게 「東洋的이미지에 注意」할 것을 주문하였다.(16면)

다음, 이효석의 「山精」에 관해서는 「健康하고 밝은글」이며, 「一見技巧를 부리지않고 平易하게 쓴듯한裏面에 筆者의素朴한技巧가 숨어있」(18면)는 작품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효석의 「山精」은 초출(初出)지 『文章』에서 창작(소설)에 배치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소설로 분류되는데 이석훈은 수필로 분류하고 있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최정희의 「소리」에 관해서는 「한편의 散文詩」같으며 「哲學的意味」(23면) 또한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석훈은 김진섭의 「文章私談」과 이태준의 「古翫」, 이효석의 「山精」, 최정희의 「소리」를 모두 수필편에 묶으면서도 글의 성격에 따라

20) 李石薰, 「文學鑑賞序說—序文에代하여」, 李石薰 編, 앞의 책, 8면.

21) 丘仁煥, 「김진섭(金晉燮)」,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편, 앞의 책, 4, 929면.

22) 이태준은 1920년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당시 그 학교의 교원이었던 이병기(李秉岐)의 지도를 받아 고전문학의 교양을 쌓았다.(신동욱, 「이태준(李泰俊)」,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1997, 2021. 9. 1. 검색.)

각각 ‘에세이’, ‘상화(想華)’, ‘수필’, ‘소품(小品)’ 등 장르상의 분류를 하고 있다. 「文章私談」과 「소리」는 첫 게재지인 『文章』에서도 그저 ‘수필’ 항목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석훈은 독본에서 좀 더 세밀한 장르 분류를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古翫」은 ‘상화’로 분류시켰는데 그 이유는 “隨筆 이라기보다는 想華니, 感想이니하는 部類에 들듯하게, 일부러 이렇게 區別”(16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석훈은 ‘193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수필이 형성되기 이전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지던 수상적 수필²³⁾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듯하고, 영어의 에세이(essay)와 동양의 수필에 대한 개념 차이도 있었던 듯하다.

한편, 이석훈은 해방기 발행된 『京鄉新聞』의 「餘滴」란에서 짧은 칼럼 세 편을 추려 「時事短評」이란 제목으로 수필·기행편에 수록하고 있다. 짧은 평론이나 논문 형식, 신문 사설 등은 평론적 수필로 분류할 수 있다 하는데,²⁴⁾ 이석훈 역시 이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餘滴」 칼럼을 수필·기행편에 수록하고 있다.

「餘滴」은 “경향신문 70년은 ‘여적’ 70년이다.”²⁵⁾라고 할 정도로 『京鄉新聞』 창간호부터(1946. 10. 6.) 지금까지 이어져 온 대표적인 칼럼란이다. 이석훈은 「餘滴」의 필자를 염상섭(廉想涉, 1897~1963)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알려져 있는 「餘滴」의 필자는 ‘대체적으로’ 정지용(鄭芝溶, 1903~1950)이다. ‘대체적으로’라고 한 이유는 염상섭도 집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餘滴」란은 무기명 칼럼이지만, 일찍이 김동리(金東里, 1913~1995)가 필자는 정지용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저자명을 알 수 있다.²⁶⁾ 『京鄉新聞』 창간 당시 정지용은 신문의 주필(편집책임자, 주간)이었고 초대 편집국장은 염상섭이었는데, 염상섭을 정지용에게 추천한 것이 일제 시대부터 정지용과 친

23) 구인환, 「수필(隨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1995, 2021, 11, 22, 검색.

24) 文德守, 『文章講義』, 서울: 詩文學社, 1993, 238면.

25) 백승찬, 「초대 논설주간 정지용」, 『경향신문』, 2016, 1, 15.

(https://www.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601152204215)

26) 金東里, 「내가 본 橫步先生 橫步先生의 一面」, 『現代文學』, 서울: 現代文學社, 1963, 5, 49면.

한 김동리였으므로 김동리는 『京鄕新聞』의 태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또 정지용은 주필이었므로 그가 「餘滴」의 칼럼란을 집필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특히 「餘滴」의 첫 회(1946. 10. 6.) 필자는 문체로 보아 틀림없이 정지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염상섭도 「餘滴」을 쓴 적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 알려진 것은 꼭 한 편인데(1946년 12월 31일자)²⁷⁾, 이는 염상섭의 장남 염재용이 부친이 작성한 원고라는 사실을 확인한 데서 기인한다.²⁸⁾ 그런데 이종호는 당시 염상섭은 편집국장이었으므로 무기명으로 '사설'이나 '여적' 등에 적지 않은 글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²⁹⁾ 김학동 역시 일찍이 정지용을 연구하며 “「餘滴」은 전적으로 鄭芝溶이 썼다고 할 수가 없다. 아마도 편집인이었던 廉愼涉도 쓴 것이 아닐까 한다.”며 염상섭 필자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³⁰⁾ 권영민 또한 “「여적(餘滴)」난에 정지용의 글이 자주 올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또 다른 필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³¹⁾ 정지용과 염상섭은 『京鄕新聞』에서 9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동시 퇴사하였으므로(1947. 7. 9.), 퇴사 이후의 「餘滴」란은 그 혹은 그들의 글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퇴사 전까지는 총 '196편'³²⁾의 「餘滴」이 게재되었다. 하지만 정지용 연구자들 역시 196편의 「餘

27) 김윤식, 『염상섭연구』, 5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918면. 김윤식 책에는 1946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31일의 오타이다. 30일에는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다. 한편, 한기형·이혜령 엮, 『염상섭 문장 전집 III 1946-1962』(서울: 소명출판, 2014)에는 이 글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8) 이종호, 「해방기 염상섭과 『경향신문』」, 『구보학보』, 21집, 구보학회, 2019, 436면 각주 73번.
29) 위의 논문, 같은 면.

30) 金學東, 「鄭芝溶의 年譜」, 『鄭芝溶研究』, 서울: 민음사, 1987, 274면.

31) 권영민, 「해설: 『문학독본』과 『산문』의 글—시정신과 산문적 글쓰기」, 권영민 엮, 『정지용 전집 2 산문』, 서울: 민음사, 2016, 454면.

32) 정지용과 염상섭의 근무 기간 : 1946. 10. 1.~1947. 7. 9.

정지용의 사직일 : 1947. 6. 28.

『경향신문』 편집관에는 1947년 8월 2일까지 정지용과 염상섭이 각각 주필과 편집국장으로 기입되어 있음.(이상 이종호, 「해방기 염상섭과 『경향신문』」, 447면 표 참고.)

필자 조사 결과, 정지용과 염상섭의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餘滴」의 총수를 헤아리면 196편이나, 정지용의 사직일(1947. 6. 28.)을 기준으로 하면 총 195편이 된다. 그러나 1947년 6월 29

滴」을 모두 정지용의 글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있을까. 오늘날 발간되는 『정지용 전집』을 보면 정지용이 생전에 발간한 『散文(附譯詩)』(서울: 同志社, 1949.)에서 「餘滴」이란 제목 아래 수록한 23편만이 수록되어 있다.³³⁾

그런데 이석훈은 자신의 독본에 「餘滴」 3편(1946. 11. 13, 15, 17)을 수록하며, 이 글의 저자가 염상섭이라고 했다. 이석훈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석훈이 틀렸을 수도 있다. 정지용이 『散文(附譯詩)』에 수록한 23편의 「餘滴」과 이석훈이 독본에 수록한 3편의 「餘滴」을 비교해 보면, 발표 시기와 관통하는 주제 의식(반외세, 정부 수립, 기관 설립 촉구 등) 그리고 문체 등에서 정지용의 글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본에 수록된 3편의 「餘滴」 글은 정지용이 『散文(附譯詩)』에 수록한 23편의 「餘滴」에 빠져 있다는 점, 염상섭 역시 독본에 수록한 「餘滴」의 내용과 겹치는 주제의 글을 타 매체에 발표한 바 있다는 점에 서³⁴⁾ 독본의 「餘滴」의 저자가 염상섭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표 4】 「餘滴」 칼럼의 소수지와 초출지

「餘滴」 소수지	鄭芝溶, 「餘滴」, 『散文(附譯詩)』, 서울: 同志社, 1949. (23편 소수)	廉尙燮, 「時事短評」,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초판: 서울: 白民文化社, 1947.	염상섭 집필로 확인된 글 (출처: 김윤식, 「염상섭 작품연보」, 『염상섭연구』, 5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918면.)
소수원	4. 「餘滴」, 『京鄕新聞』, 1946. 10. 13.	冷淡한選舉: 「餘滴」, 『京鄕新聞』,	

일의 「餘滴」은 지금까지 「餘滴」에서 주로 다루던 주제 의식(반외세, 국가 건설, 식량 문제 등)이나 문체가 비슷하므로 동일 인물의 글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정지용과 염상섭(?)이 『京鄕新聞』 근무 기간 중에 집필한 「餘滴」의 총수는 196편이라고 생각한다.

33) 김학동 편, 『정지용 전집 2 산문』, 3권 7쇄; 서울: 민음사, 2013, 477면.; 최동호 엮, 『정지용 전집 2 산문』, 서울: 서경시학, 2015, 698면.; 권영민 엮, 『정지용 전집 2 산문』, 350면.

196편의 「餘滴」은 전체적으로 다시 철저하게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34) 廉想涉, 「軍政에對한나의進言!-部門別委員會設置와實質的移讓」, 『新天地』, 서울: 서울신문사, 1947. 2, 105~109면.

<p>『餘滴』의 초출지 (시간순 정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餘滴』, 『京郷新聞』, 1947. 1. 8. 2. 『餘滴』, 『京郷新聞』, 1947. 1. 9. 3. 『餘滴』, 『京郷新聞』, 1947. 1. 16. 5. 『餘滴』, 『京郷新聞』, 1947. 1. 22. 6. 『餘滴』, 『京郷新聞』, 1947. 1. 23. 7. 『餘滴』, 『京郷新聞』, 1947. 1. 25. 8. 『餘滴』, 『京郷新聞』, 1947. 1. 26. 9. 『餘滴』, 『京郷新聞』, 1947. 1. 29. 10. 『餘滴』, 『京郷新聞』, 1947. 1. 30. 11. 『餘滴』, 『京郷新聞』, 1947. 2. 1. 12. 『餘滴』, 『京郷新聞』, 1947. 2. 5. 13. 『餘滴』, 『京郷新聞』, 1947. 2. 8. 14. 『餘滴』, 『京郷新聞』, 1947. 2. 9. 15. 『餘滴』, 『京郷新聞』, 1947. 2. 12. 16. 『餘滴』, 『京郷新聞』, 1947. 2. 13. 17. 『餘滴』, 『京郷新聞』, 1947. 2. 18. 18. 『餘滴』, 『京郷新聞』, 1947. 2. 19. 19. 『餘滴』, 『京郷新聞』, 1947. 2. 22. 20. 『餘滴』, 『京郷新聞』, 1947. 2. 26. 21. 『餘滴』, 『京郷新聞』, 1947. 2. 27. 22. 『餘滴』, 『京郷新聞』, 1947. 3. 8. 23. 미상 	<p>1946. 11. 13. 對日賠償要求 : 『餘滴』, 『京郷新聞』, 1946. 11. 15. 鐵道事故 : 『餘滴』, 『京郷新聞』, 1946. 11. 17.</p>	<p>『餘滴』, 『京郷新聞』, 1946. 12. 31.</p>
---------------------------------------	---	--	--

『京郷新聞』의 「餘滴」 칼럼은 본디 글의 제목이 없다. 그런데 이석훈 편 독본에는 3편의 「餘滴」 글에 ‘冷淡한選舉’, ‘對日賠償要求’, ‘鐵道事故’라는 소제목이 있다. 이석훈이 독본을 발간하며 임의로 붙인 것인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석훈이 3편의 「餘滴」을 독본에 실은 이유는 이 글들이 “短評이 가져야 할 銳利, 要領等”(독본 〔註釋〕, 25쪽)을 잘 갖추었기 때문이다. 가령, ‘對日賠償要求’란 글은 필리핀이 당시 일본에 요구할 것으로 추측된 공업시설 일억불 요구를 지켜보며, 우리나라 또한 일본에 요구할 대일배상 시설과 계산 방법, 대일배상을 위한 사정기관 촉구 설립을 강하게 주장한 글이다. 짧은 글이므로 전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對日賠償分配에 比律賓은 工業施設 一億佛을 要求하리라고.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要求할것인가. 두말할것없이 工業施設이다. 우리의 生命線은 工業立國이기 때문이다. 자 얼마나 要求할까? 三十六年—人生의 一世代를 넘는다. 사람이 一生을 살자면 얼마만한 物資, 얼마한 돈이 드는가? 三千萬이 三十六年間 종노릇한 代價를 어엿이 달라는것이다. 八時間制의 勞動資金을 따져도 決코 一億佛로 論之가 아니다. 問題는 누가 査定하느냐에있다. 「번—즈」長官의 등에 얹여서 받자는 그런 料量이거든 애초에 받을생각도 말아라. 賠償討議前으로 朝鮮에는 政府가 서야 한다는 말이다. 堂堂히 우리입으로, 우리손으로 받아야 할거다. 于先은 우리 손으로 査定해야 할거다. 뉘게 맡기랴느냐? 査定機關부터 세우자.[강조—필자. 이하 상동³⁵⁾

조선의 대일 배상 문제에 착안하여 글을 시작하였지만, 이를 위하여 조선에 정부를 수립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사정 기관도 세우자고 한다. 대일 배상 요구에서는 당당함이 느껴진다. ‘명칼럼’³⁶⁾임이 분명하다.

‘鐵道事故’란 글은 당시 운수 기관(運輸機關)의 무책임성과 무통제성을 비판한 글인데 글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안타까워한다.

倭政 밑에 자라나느라고 技術의 未熟도 없지않은것이 事實이겠으되, 責任있는 자리에 놓였거든 于先은 奴隸根性부터 버리고, 日帝때以上으로 새精神이 번쩍 들었어야 하련마는, 그精神이 아즉도 안든것이 이런 失手의 첫 張本임을 알아야 할게 아니냐?³⁷⁾

35) 廉尙燮, 「時事短評(新聞餘滴)」,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24면.

36) 임현영, 「가장 문학적인 명칼럼」, 『교수신문』, 2006. 5. 2.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657>)

37) 廉尙燮, 「時事短評(新聞餘滴)」, 李石薰 編, 앞의 책, 25면.

이석훈은 이 글들에는 [감상을 남기지 않고 있으므로 수많은 「餘滴」들 중 하필 이 3편이 수록된 이유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이석훈은 일제강점기 자신의 친일의 이력으로 1947년 초까지 가명으로 주로 번역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을 뿐, 당대 해방 정국에서, 그것도 본명으로, 자신의 정치성을 선명하게 드러낸 적이 없다. 이것은 그의 해방 이후의 양심의 작동 혹은 다른 의미에서의 정치 감각이었다. 해방 후 『백민』 잡지사에서 주로 활동한 점이라든지,³⁸⁾ 1948년 해군에 정훈장교로 입대한 점을 미루어 그의 정치 성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지만, 사실 『백민』에서의 활동은 김송의 주선 때문이었고,³⁹⁾ 군 입대의 근본적 원인은 가족의 생계 문제 해결이었다.⁴⁰⁾

그렇다면, 자신이 펴낸 문학감상독본에서 『京鄉新聞』의 고정 칼럼란인 「餘滴」의 칼럼을 선별 수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는 당대 『京鄉新聞』사의 입장에 동의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즉, 이 시기 “좌우연합으로 말해지는 소위 『경향신문』의 중도적 성격”⁴¹⁾에 그도 끌렸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물론 「餘滴」은 정지용과 염상섭이라는 문단의 대선배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게재된 칼럼인 만큼 오직 ‘문장면’에서 문학을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보기가 될 수 있어 수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1948. 8. 15.)되기 전까지, 이석훈은 좌우합작 운동을 통해 민족 통합의 정부와 국가가 세워지길 희망했던 것은 아닐까. ‘冷淡한選舉’라는 제목으로 독본에 수록된 「餘滴」의 글은 필자의 이런 추측을 더욱 강하게 한다.

38) 김한식, 「『백민』과 민족문학-해방 후 우익 문단의 형성」, 『상허학보』, 20, 상허학회, 2007.

39) 金松, 「自傳적 文藝半世紀 ⑤ 解放前夜와 「白民」 시절」, 『新東亞』, 東亞日報社, 1980. 4, 255면.

40) 李石薰, 「本職과現職 小説과軍人」, 『民聲』, 高麗文化社, 1950. 3.; 韓黑鷗, 「孝石과 石薰」, 『人生散文』, 一志社, 1974, 170~171면 참고.

41) 이종호, 「해방기 염상섭과 『경향신문』」, 431면.

AP記者 印象記에曰, 朝鮮은「別居하는夫婦라고」, 合意別居면 그래도 참을수가 있으면마는. 甚惡한 시어머니가 생무지로 떼어놓은 귀밑머리막 푼 內外다. 심각한 시어미는 누구누구드나?

(중략)

「立議」에 左右協력이 必要하다는 美誌「世界報告」도 잘못본것은 아니 거니와, 伊太利地方選舉에 左右翼이 白兵戰을 演出한다는것이, 반듯이 부럽다는 意味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白兵戰을 군것에 돌리는게 걱정이 란 말이다. 아무리 그런 環境에 놓였다 하기로, 너무나 熱意가 없다.⁴²⁾

‘귀밑머리 막 푼 내외’란 해방된 조국을 가진지 얼마 안 된 ‘남한’과 ‘북한’일 것인데 이 둘은 안타깝게도 외세에 의해 해방 후 강제 별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용문의 저자는 ‘귀밑머리 막 푼 내외’를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무지로 떼어놓은 나쁜 시어머니는 누구인가며 외세를 규탄한다. 나아가 ‘좌우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는데, 이탈리아 지방 선거에서 좌우익이 연출한 백병전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좌우 합작의 총선거는커녕 쓸데없는 데에서 좌우익이 서로 싸우고 있음을 개탄한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마저 결렬되고, 남한과 북한은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오늘날까지 분단국가로 남게 된다. 이석훈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定州)였는데, 정주는 해방 후 외세에 의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땅이 되었음을 염두에 두면, 이석훈은 고향 때문이라도 좌우합작운동을 통해 민족 통합의 정부와 국가가 세워지길 희망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논조를 가진 『경향신문』의 칼럼을 독본에 수록한 것은 아닌가 한다.

한편, 시조 시인 이은상(李殷相, 1903~1982)이 쓴 기행문 「天險의遮歸島」는 이은상이 1937년 12월에 출판한 『耽羅紀行 漢拏山』에서 「天險의遮歸島」를 전재(轉載)한 것이다. 이 글의 초출은 1937년 8월 20일 『朝鮮日

42) 廉尙燮, 「時事短評(新聞餘滴)」, 李石薰 編, 앞의 책, 23-24면.

報」에 발표된 같은 제목의 글이다. 하지만 원본 비평 결과 이석훈은 초출본이 아닌 단행본에 수록된 글을 저본으로 삼아 독본에 가져왔다.(단행본의 글이 초출본에 비해 한 단락 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석훈이 이 글을 독본에 수록한 이유는 이 글이 “史話를爲主한紀行文의 見本”(독본, 30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漢文體가 많으나, 骨格이 뚜렷”하다는 평도 남기고 있다.(30면)

마지막으로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의 기행문 「世界的偉觀인三池美」의 저본은 최남선의 『白頭山觀參記』(1927)에 수록된 같은 제목의 글이다. 『白頭山觀參記』는 최남선이 1926년 7월 28일부터 1927년 1월 23일까지 『東亞日報』에 연재한 것을 묶어 단행본으로 낸 것이다. 독본에 수록된 「世界的偉觀인三池美」에 해당하는 『東亞日報』 초출본은 아래와 같다. 최남선은 『東亞日報』 연재본을 단행본으로 낼 때 아래 세 연재본을 합치고 「世界的偉觀인三池美」란 제목을 붙였다.

- 崔南善, 「白頭山觀參-二九宇宙美の一示顯」(29), 『東亞日報』, 1926. 9. 1.
 _____, 「白頭山觀參-世界的의三池美」(30), 『東亞日報』, 1926. 9. 3.
 _____, 「白頭山觀參-쪽으러진三池魂」(31), 『東亞日報』, 1926. 9. 5.

이석훈이 “漢文臭가 多分”한 이 글을 독본에 수록한 이유는 “白頭山の 神祕性, 아름다움을 凡常치않게 그려보힌 좋은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39면) 독자에게 재독, 삼독을 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번 읽은 후라야 “진득한 곰국이나, 탕수육을 먹는듯한 맛을 알게”하는 글이기 때문이다.(39면) 음식맛에 비유한 그의 감상평이 독창적이며 이석훈답다.

2) 小說·戲曲篇

【표 5】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小說·戲曲篇’ 목차 및 저본 또는 첫 게재지

수록 작품명	작가명	저본 또는 첫 게재지	비고
山村(掌篇)	韓雪野	韓雪野, 「山村」, 『朝光』,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1938. 11.	발취
붉은산(短篇小說)	金東仁	金東仁, 「붉은산-어떤 醫師의 手記」, 『金東仁短篇選』, 第1卷, 京城 博文書館, 1939.	발취
가난한설(小品)	李箕永	李箕永, 「설」, 『朝光』,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1938. 5.	발취
初夜(長篇拔萃)	朴鍾和	朴鍾和, 「多情佛心」(1)·(4), 『每日新報』, 1940. 11. 16·20.	발취
林巨正傳(長篇拔萃)	洪命熹	碧草 洪命熹, 『林巨正 第一卷-義兄弟篇(1)-』,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1939.	발취
웨니스의商人(戲曲拔萃)	W·웨크스피어	미상	발취
無明(中篇拔萃)	春 園	李光洙, 「無明」, 『文章』, 1939. 2.	발취

‘소설·희곡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록 작가의 좌우익 사상 혹은 일제 강점 시기의 행위에 대한 배제나 차별 없이 오직 작품의 내용만 따져 글을 수록했다는 점이다. 독본 결정관이 발간된 1947년 9월은 아직 남한에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기도 했지만, 문단은 이미 양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⁴³⁾ 이석훈은 이와 상관없이 문학 지망생들에게 모범이 될 만하다고 판단한 글을 뽑아 수록했다. 그러므로 그는 우익 측(박종화) 작가의 작품은 물론, 좌익 내에서도 갈라져 있었던 조선문학건설본부 측(이태준)과 조선프로예맹 측(이기영, 한설야) 작가들의 작품을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골고루 수록하였다. 이와 같은 선별 기준은 ‘소설·희곡편’에만 한정되지 않고 독본에 수록된 모든 장르에서 한결같이 유지된다. 한편, 이광

43) 해방공간의 양분된 문단에 관해서는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초판 3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이 자세하다.

수(李光洙, 1892~1950)의 작품 또한 수록한다. 당시 이광수는 해방 직후부터 친일파로 비판 받아 이 년간 침묵으로 일관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⁴⁴⁾ 이석훈은 이광수의 작품을 수록함으로써 조선 문단에서의 이광수의 위치를 인정하고 ‘존경심’⁴⁵⁾ 또한 드러내었다.(여기에는 이석훈과 이광수의 친분도 작용했을 것이다.⁴⁶⁾) 이로써 그는 자신의 독본에 ‘조선의 세 천재라 불렸던 벽초 홍명희(洪命熹, 1888~1968)와 육당 최남선 그리고 춘원 이광수⁴⁷⁾의 작품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이광수 이후의 작가로 동인지 『創造』와 『廢墟』에 각각 관계했던 김동인(金東仁, 1900~1951)·염상섭의 작품, 나아가 카프(KAPF)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역사소설 등을 골고루 수록하였다.

우선 카프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면 한설야의 「山村」과 이기영의 「가난한설」이 있다. 한설야의 「山村」은 “三部作中篇『濁流』의 第三部(終篇)”에 해당하는 소설로, 초출지 『朝光』에는 “第一部『洪水』第二部『부역』모다(『朝鮮文學』所載)과함께 읽어주기를 바란다”라는 작가 부기가 있다.⁴⁸⁾ 「山村」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편소설이다. 이석훈은 이 중 6장 부분만 발췌 수록하였는데, 독본에 수록한 부분은 한 편의 “獨立한것으로 볼수”도 있겠다 생각하여 ‘掌篇’이라고 표기하였다.(44면)⁴⁹⁾ 「山村」의 전체 줄거리는,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이후 강조된 ‘생업보국(生業報國)’을 등에 업고 조선인 지주 김갑산의 땅을 손에 넣은 T보통학교 일본인 교장 사사

44)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1판 3쇄; 서울: 솔출판사, 2008, 380~395면.

45) 이석훈은 이광수를 존경하였다.(李石薰, 「作家作品年代表」, 『三千里』, 京城 三千里社, 1937. 1, 240면.)

46) 이석훈과 이광수의 친분에 관해서는 申妮三, 「李石薰 文學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2014. 8, 30면 각주 9번과 신미삼, 「해방기 이석훈 연구」, 132면 참고.

47) 조용만, 『京城野話』, 서울: 도서출판 窓, 1992, 342면.

48) 韓雪野, 「山村」, 『朝光』,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1938. 11, 204면. 「洪水」와 「부역」은 각각 『朝鮮文學』(京城 朝鮮文學社) 1936년 5월, 1937년 6월에 발표.

49) 이 점은 이기영의 「가난한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난한설」의 원작은 「설」로 단편소설인데 이석훈은 독본에 발췌 수록한 후 ‘小品’이라고 표기하였다.

끼가 그동안 김갑산 땅에서 십 년 넘게 소작을 부치던 조선인 소작인들
 다 내 쫓고 자기 고향에서 이주 시킨 모범농(模範農)(일본인)과 T보통학
 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모범경작생들에게 소작을 맡기자 양편 소작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가 결국 남자 주인공인 조선인 ‘기술’과 몇몇
 사람들이 감옥으로 잡혀가고 만다는 내용이다. 즉, 한설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일인의 토지점병으로 인한 식민지 농촌 경제의 재편 과정”과⁵⁰⁾
 이 과정에서 조선인 농민들의 피해상(이농, 농민의 파산)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하지만 독본에 수록된 부분은 단순히 “日帝下朝鮮農民의 苦闘
 相”(44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조금 아쉽다.

한편, 이석훈은 이 작품이 “프롤레타리아 文學의 前期의 作品에 屬할 것
 이다.”(44면)라고 했지만 이는 잘못된 해설이다. 시기적으로 이 작품은 카
 프 해체(1935. 5) 훨씬 이후인 1938년 11월에 발표되었고 작품 속 시대 배
 경도 특정 용어들을 통해 중일전쟁 이후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내용적
 으로도 이 작품은 ‘유형적인 소작쟁의를 다루는 카프농민문학의 도식성’
 에서 벗어나, 농민조합운동에도 관계해 본 경험이 있는 ‘기술’을 통해 ‘민
 족 모순의 문제’를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⁵¹⁾ 즉 수탈당하는 농민의 현
 실에 주목하면서도, 30년대 후반 일제 지주들의 착취 메카니즘이 조선의
 농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관철되는가를 보여주어 이 시기 민족적 모
 순의 증대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⁵²⁾ 작품이므로 이석훈의 시기 구분
 은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기영의 「가난한설」은 전향 소설이다. 초출지의 제목은 「설」이고 이
 석훈도 이를 알고 있지만(독본 [註釋], 60면) 독본의 제목은 「가난한설」로
 되어 있다. 『李箕永短編集』(서울: 학예사, 1939)이 있으나 필자 미견인 관

50) 송하춘 편저,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1917-1950』,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563면.

51) 양문규, 「일제하 한설야 소설의 농촌·농민의 형상화」, 『한설야 문학의 재인식』, 문학과사상
 연구회 편, 서울: 소명출판, 2000, 139·143면.

52) 위의 논문, 144면.

계로 제목을 바꾼 사람이 누구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설」은 “전향자의 자조를 중심에 놓은 작품”으로 주인공 ‘경훈’은 “시대와 무기력한 자기에 대한 증오감을 못 이겨 술에 취해 캄캄한 밤거리를 방황”한다. “나아갈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것이다.⁵³⁾ 하지만 이석훈은 작가의 분신인 주인공의 전향과 그로 인한 자조의 정신은 건드리지 못한 채 그저 “日帝時代의 苛酷한檢閱 밑에서, 貧者의 生活을 애써그린 노력은 慶賀”(60면)하지만 “좀더筆致가 緻密하고, 寫實的이었으면”(60면) 한다 수준의 감상을 드러내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

한편, 김동인의 「붉은山」은 작가의 민족의식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여겼음인지 꼭 한 문장을 빼고는 전문이 수록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소설은 만주에 살던 조선인 ‘정익호’가 중국인 지주와 싸우다 죽게 되었을 때 붉은 산과 흰 옷으로 이미지화된 고국과 동포를 그리워하다는 내용이다. 정익호는 죽기 직전 ‘나’에게 애국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나’와 주위 사람들은 이에 맞춰 다 같이 애국가를 합창하므로 해방된 조국에서 간행되는 독본에 수록하기에 안성맞춤인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이석훈의 감상을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받는 「익호」에게도 祖國에의 愛着心은 열렬했던 것이다. (중략) 祖國愛를 은근히 양양케하는 佳作이다.”(56면)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은 1931년 7월 2일의 충돌로 대표되는 중국 만보산 삼성보 지역에서의 조선 농민과 중국인 사이의 갈등(만보산 지역 사건)이 한반도에 전해지면서, 7월 2일 밤 인천에서 시작되어 일주일 가량 식민지 조선 전역에서 일어난 중국인 배척 폭동(배화(排華) 사건)을 김동인이 직접 경험한 뒤 집필된 소설이다. 만주에서의 충돌은 특별한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도 만보산에서 수로를 파던 조선 농민이 다수 중국 농민에게 맞아죽었다는 식으로 조선에 와전(訛傳)되자 흥분한 조선 사람들은 인천,

53) 인용은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1판 2쇄; 서울: 문학동네, 2002, 167면.

서울, 평양 등지의 화교들을 습격하여 100명이 넘는 중국인을 살해하고 수천 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재물 또한 손괴하였다. 배화 사건 이후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그때까지 맹목적으로 강조해 오던 '민족의식'에 조금의 경계심을 품게 되었지만, 김동인은 도리어 이와 같은 소설을 창작하여 내적 맥락 없이 중국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붉은 산과 흰 옷'으로 다시 한 번 민족적 정서를 자극한 것이다. 즉, 「붉은山」에서 드러난 작가의 민족의식이란 결국 배화 사건에서 경험한 맹목적인 민족의식의 영향인 것이다.⁵⁴⁾

'배화 사건'은 당시 식민지 조선 안에서는 보도 통제로 그 실상이 상세히 보도되지 못했다.⁵⁵⁾ 당시 이석훈은 춘천에서 『大阪毎日新聞』 통신원과 『京城日報』 춘천지국특과원을 역임하고 있었지만,⁵⁶⁾ 해방 후 김동인의 「붉은山」을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는 점으로 보아⁵⁷⁾ 배화 사건과 또 배화 사건과 「붉은山」의 영향 관계 등은 몰랐던 듯싶다. 그렇게 배화 사건은 망각되고, 「붉은山」은 오용된 민족의식 덕분에 해방기 넘쳐나던 민족주의 담론과 더불어 이석훈 편 독본에 수록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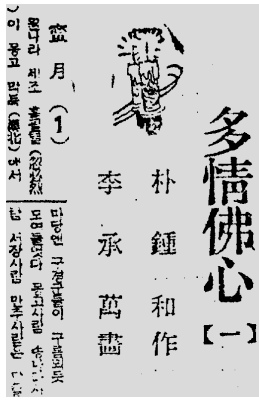
「初夜」는 독본에 '長篇拔萃'라고 명기되어 있듯이 박종화(朴鍾和, 1901~1981)의 신문 연재 장편 역사소설 「多情佛心」을 발췌한 것이다. 「多情佛心」은 『毎日新報』에 1940년 11월 16일부터 1941년 7월 23일까지 총 200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독본에 수록된 부분은 「蜜月」 1회와 4회이다. 그런데 독본에서는 이 부분의 제목이 「初夜」로 되어 있다. 「多情佛心」은 1942년 박문서관에서 상하권의 단행본으로도 나왔는데, 현재 확인되는 단

54) 이상 배화 사건과 김동인에 관한 설명은 이상경, 「1931년 '배화(排華) 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 제11집, 만주학회, 2011, 87-88·110면 참고.

55) 위의 논문, 90면.

56) 申妮三, 「李石薰 文學 研究」, 65-66면 참고.

57) 王明, 「金東仁論—『붉은山』을 중심으로—」, 『白民』, 1947. 1, 30면. 王明은 해방기 이석훈의 가명이다. 이에 관해서는 신미삼, 「해방기 이석훈 연구」 참고.



【사진 2】 朴鍾和

「多情佛心」1, 『每日新報』, 1940. 11. 16.

행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하권뿐이므로, 상권에서 ‘蜜月’이 ‘初夜’로 바뀌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해방 후 간행된 『多情佛心』 중 필자가 찾아볼 수 있는 한에서 가장 빨랐던 1963년 을유문화사 3판본과 1965년 민중서관 3판본, 그리고 박종화 문학전집에 수록된 『多情佛心』 등이 모두 ‘蜜月’로 되어 있으므로⁵⁸⁾ 독본에 표기된 제목은 이석훈이 임의로 바꾼 것으로 추정한다. 이석훈은 [감상에서 “多情佛心”의 첫머리, 初夜의 場面을 떼는 것”(68면, 강조는 인용자)이라고 발췌 부

분을 밝히고 있으므로, 발췌 부분에 맞춰 제목 또한 바꾼 것이 아닌가 한다. 이석훈이 이 작품을 수록한 이유는 “現代朝鮮의 大衆小說로서 唯一한 典型”(68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학 지망생들에게는 “筆致가 浪漫的이고, 裝飾的인點을 主意해보라”(68면)고 한다.

한편, 역사소설은 신비적인 세계에 탐닉한다든가 이념을 강조하고자 역사적 진실성을 등한시하는 ‘낭만주의적 역사소설’과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전사로서 진실하게 묘사하려는, 즉 역사적 진실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사실주의적 역사소설’로 대별된다.⁵⁹⁾ 노국공주와 공민왕 등 “실존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술보다는 주인공의 사랑을 낭만적으로 그리는 데 주력”한⁶⁰⁾ 박종화의 「多情佛心」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백정 출신인 도적 임격정의 활약을 통해 조선시대 민중들의

58) 朴鍾和, 『多情佛心』, 三版: 서울: 乙酉文化社, 1963.(初版: 1954); 朴鍾和, 『韓國文學全集 5 錦衫의 피·多情佛心』, 三版: 서울: 民衆書館, 1965.(初版: 1959); 朴鍾和, 『月灘朴鍾和文學全集 10 多情佛心』, 再版: 서울: 三慶出版社, 1981.(初版: 1980)
59) 김윤식·정호웅, 앞의 책, 218면 참고.
60) 송하춘 편저, 앞의 책, 97면.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린 대하(大河) 역사소설⁶¹⁾ 홍명희의 「林巨正傳」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林巨正傳」은 “『조선일보』에 1928년 11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연재되다가, 일제의 『조선일보』 강제 폐간 조치로 다시 『조광 朝光』에 옮겨 연재했으나 미완성으로 끝났다. 미완성으로 끝난 부분은 화적편(火賊篇)의 마지막 일부로 작품 전체 분량에 비추어 대략 10분의 1 정도 분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표제는 연재 초기에 「임격정전 林巨正傳」이었으나 1937년 연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서 「임격정」으로 바뀌었다. 「임격정」은 전체 구성이 봉단편(鳳丹篇)·피장편(皮匠篇)·양반편(兩班篇)·의형제편(義兄弟篇)·화적편(火賊篇) 등 모두 다섯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격정」은 작품 전체가 단행본으로 간행된 적은 한 번도 없고, 광복 전에는 조선일보사에서 의형제편과 화적편 일부가 4권으로 출간된 적이 있으며(義兄弟篇(1), 義兄弟篇(2), 火賊篇(上), 火賊篇(中)), 광복 후에는 을유문화사에서 역시 의형제편과 화적편 일부가 출간된 바 있다.”⁶²⁾ 독본에 수록된 부분의 저본은 조선일보사에서 출간한 4권 중 한 권인 『林巨正 第一卷-義兄弟篇(1)-』이다.⁶³⁾(특히 ‘황천왕동이(1)’ 부분) 독본에 수록한 부분의 신문 초출은 『조선일보』 151회(1933. 8. 1.)이지만 원본 대조 결과 이석훈은 단행본을 저본으로 삼았다.(단행본에는 신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조용만은 조선 세 천재 중 필두에 해당하는 홍명희는 한국 문학, 역사, 서양 학문(최신 학문 포함) 모두에 밝았고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말도 궁중에서 쓰는 용어로부터 백정들끼리 쓰는 상말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⁶⁴⁾ 이석훈 역시 어휘와 문체에 주목하여 “豐富한 語

61) 강영주, 「민중의 삶과 조선 정조(情調)의 파노라마-홍명희(洪命熹)의 『임격정』, 강영주 외 12명,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7, 현대소설 상, 서울: 휴머니스트, 2006, 99면.

62) 조남철, 「임격정(林巨正)」,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1997, 2021. 11. 20. 검색.

63) 碧草 洪命熹, 『林巨正 第一卷-義兄弟篇(1)-』,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1939.

64) 조용만, 『京城野話』, 345~346면;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격동기의 文化界 秘話』, 서울: (주)범양사 출판부, 1988, 323면.

彙가 놀라웁고, 그 諧謔味와 李朝의 雰圍氣는 獨特한것이있다” 하였고, “對話의구수한맛, 生生하고如實함 等等”에서 “後進의배울點이 많다.”(74면)며 적극 추천한다.

“감방소설”인 이광수의 「無明」은 “1937년 6월에 동우회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치장과 병감에서 약 6개월간 생활한 이광수 자신의 직접 체험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작가의 의도는 이를 넘어 인간 영혼의 구제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구제의 실천을 다하는 데 있지만, 잡념들을 통해 인간의 내부에 도사린 추악한 욕망들을 깊이 들추어낸 수작이다.”⁶⁵⁾ 독본에 수록된 부분은 「無明」의 가운데 부분과 끝 부분이다. 이석훈은 “現代文學의 緻密性은 없지만, 平易한 文章으로 大家의 風이 있다”(88면), “人間愛의 너그러움이 重要한 플롯트를 이루었다.”(88면)고 평한다.

『진상! 저는 꼭 죽게 됐는게라, 이렇게 얼굴까지 통통 부었능기라우. 어젯밤 꿈을 꾸니까 제가 누런 굵은베로 지은 제복을 입고, 굴건을 쓰고 종로로 돌아 단기는 꿈을 꾸었지랴오. 이게 죽을 꿈이 아닝기오?』 / 하는 그 목소리는 눈물겹도록 부드러웠다. // (중략) //

『진상,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죽어서 분명히 지옥으로 안가고 극락세계로 가능기오?』

하고, 그 가는 눈을 할수있는대로 크게 떠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생전에 이렇게 중대한, 이렇게 책임 무거운 질문을 받아본 일이 없었다. 기실 나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히 대답 할만한 자신이 없었던마는 이 경우에 나는 비록 거짓말이 되드라도, 나 자신이 지옥으로 들어갈 죄없이 되드라도 주저할수는 없었다. 나는 힘있게 고개를 서너번 끄덕끄덕 한뒤에

『정성으로 염불을 하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거짓말 될리가 있겠습니까?』

65) 김윤식·정호웅, 앞의 책, 369면.

하고, 내각 듣기에도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엄청나게 결정적으로 대답을 하였다.

운은 수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를 향하여, 크게 한번 허리를 굽 흐리고는 창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⁶⁶⁾

끝으로 이석훈의 독본 구성 방침은 전형이 될만하다면 외국 작품도 수록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셰익스피어(Shakespeare, William, 1564~1616)의 「웨니스의商人」도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웨니스의商人」은 “윌럼 셰익스피어」의 代表的戲曲”(79면)이다. 독본에 수록된 부분은 유명한 재판 장면인데, 제목 아래 기입된 작품 요약 문단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웨니스의商人 안토니오가 가슴의살(肉) 한푼드(磅)를 문서상저당하고, 유대인 샤일락에게서 빚을 썼으나 기한이넘도록 갚지못하매, 드디어 法廷에 서게되었다. 때에, 富裕한女主人公 포샤가있어, 名裁判官노릇을 한다.⁶⁷⁾

「웨니스의商人」의 번역은 이석훈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석훈이 독본을 발간(1947. 9)하기 전, 조선에서 번역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김병철의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서울: 乙酉文化社, 1975.)를 참고하여 간행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은데, 1번 작품 외 문체 대조 결과 모두 이석훈의 「웨니스의商人」과 번역이 달랐다.(1번 작품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귀중본서고에 소장. 열람 불가)

66) 春 園, 「無明」,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84-86면.

67) W·셰익스피어, 「웨니스의商人」, 李石薰 編, 위의 책, 75면.

【표 6】 조선에서 번역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목록(1947년 9월 전까지)

순번	원작자	역자	번역 작품명	출처	간행일
1	셰익스피어	吳天園	베니스의商人	『學生界』 4號-6號	1920. 10. 1.~12. 1.
2	셰익스피어	吳天卿	婦人辯士 海城月	京城새동무社	1922. 9. 22.(初版) 1923. 7. 18.(再版)
3	셰익스피어	李相壽	베니스상인(一名 人肉裁判)	朝鮮編輯書株式會社	1924. 9. 17.
4	셰익스피어	朴龍喆	베니스의 商人	東光堂書店	1940. 5. 20.
5	셰익스피어	金炯國	베니스의 商人	윌스·램, 『셰익스피어抄話集』, 同心社	1947. 8. 5.

이석훈의 번역 저본은 원본 비평 결과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 1859~1935)가 일본어로 번역한 『베니스의 상인』으로 판단된다.⁶⁸⁾ 즉 이석훈은 영어 원서가 아닌 일역서를 저본으로 삼아 다시 한국어로 중역(重譯)했다. 이석훈은 영어와 일본어 심지어 러시아어에까지 능하였고, 텍스트도 당시에는 일본어로 번역된 세계 문학 전집을 구하기가 훨씬 쉬웠으므로 중역을 선택한 것 같다. 해방 직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헐값으로 팔거나 버리고 간 책들이 일용잡화와 함께 길거리 노점에 범람할 때’였던 것이다.⁶⁹⁾ 이석훈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물론原語로써 읽음만 같지 못할것이나 英國(西洋) 古典劇의 片鱗을 엿볼수있음즉하다”, “臺詞로써 그 人物의性格을 表現하는 手法에 留意하라”(79면)

3) 詩歌篇

【표 7】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詩歌篇’ 목차 및 저본 또는 첫 게재지

수록 작품명	작가명	저본 또는 첫 게재지	비고
故鄉(詩)	鄭芝鎔	鄭芝鎔, 「故鄉」, 『東方評論』, 4호, 京城 東方評論社, 1932. 7.	전문

68) 坪内逍遙譯, 『ゼニスの商人』, 新修シェークスピア全集, 第15卷, 東京: 中央公論社, 1933.

69)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재판 23쇄; 서울: 웅진닷컴, 2002, 185-186면.

비개인여름아침(短詩)	金玼燮	金玼燮, 「비개인여름아침」, 『憧憬』, 京城 硏究書林, 1938.	전문
무지개(譯詩)	위-즈-위-스 李歇河 譯	위-즈-위-스, 李歇河·金尙鎔 共譯, 「무지개」, 崔載瑞 編, 『海外 抒情詩集』, 京城 合資會社 人文社, 1938.	전문
개(散文詩)	뚜루게-네프	「산문시(散文詩)」, 『유럽 通報』, 1882. 12.(집필 : 1878. 2.)	전문
꽃다발(女流漢詩譯) —許蘭雪軒外七人—	金岸曙	金岸曙 譯, 『朝鮮女流漢詩選集 꽃다발』, 京城 博文書館, 1944.	발췌
民謠(자장노래外三(sic) 二篇)		金素雲 編著, 『諺文 朝鮮口傳民謠集』, 東京: 第一書房, 1933.	발췌
時調集(成三問外二十四(sic) 三首)		미상	

‘시가편’은 조선시대 시조부터 한시, 민요, 그리고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수록하였다. ‘소설·희곡편’에서와 같이 외국의 유명한 작품 또한 수록하였다. 우선 정지용의 「故郷」은 “形式, 內容이 빈틈없”(91면)는 시라고 하였다. 아마 내용면에서 고향 상실의 아픔을 예리하고도 허전하게 노래한 것이 이석훈 가슴에 와 닿은 듯하다. 이석훈은 “뼈꼭이 제철되면 으레 울고, 고향山河는 봄이면 옛날그대로의 봄을 단장하겠만” “마음은 옛날그때 그대로를 지니지않은 것이 서글프다” 하였다.(91면) “38선을 통과하는 서울·평양간의 철도가 끊긴 것은 1945년 8월 말”⁷⁰⁾이었으므로 그는 당시 실제로 실항민이었다. 「故郷」은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시이지만, 해방기 나라가 두 쪽이 난 상황에서 특히 고향을 북쪽에 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가슴 아프게 다가왔을 것이다.

김광섭의 「비개인여름아침」은 “現代詩에서 短詩의 한샘플로 골라” 본 것으로 “한幅의 水彩畵”같다고 하였다.(92면)

외국시인 「무지개」와 「개」는 이석훈 역시 큰 감동을 받은 작품인지 서제스천이 아닌 긴 주석과 감상을 달고 있다. 이석훈은 “一見 平凡하나, 그러나 그 內容은 深奧”(93면)한 작품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두 작품

70) 김윤식, 『염상섭연구』, 734면.

이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우선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1770~1850)의 「무지개」는 “汎人間的인 英國近代詩의 한 典型”으로, “英國浪漫派 巨匠의 面貌가 躍如”한다고 보았다.(94면) 이 시는 어린 시절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볼 때와 같이 언제나 감동과 희망으로 가슴 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시인데, 이석훈은 특히 ‘어린애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시행에 시인의 깊은 사상이 담겨 있다고 보았다. 「무지개」의 원 제목은 ‘My Heart Leaps Up’으로 윌리엄 워즈워스가 1802년에 창작하여 1807년에 발표한 시이다.⁷¹⁾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개」도 이석훈이 직접 번역한 것으로 여겨진다. 「개」는 일찍이 김억(金億, 1896~?)과 나도향(羅稻香, 1902~1927), 손진태(孫晉泰, 1900~?), 김상용(金尙鎔, 1902~1951), 변영로(卞榮魯, 1898~1961) 등에 의해 번역된 바 있는데, 원본 비평 결과 이석훈 독본의 「개」와는 모두 문체가 달랐다.⁷²⁾

【표 8】 조선에서 번역된 투르게네프의 「개」(1947년 9월 전까지)

순번	원작자	역자	번역 작품명	출처	간행일
1	IVAN TRUGENEV	岸曙生	모서아시단 [露西亞의詩壇] 기	『泰西文藝新報』	1918. 11. 2.
2	쓰르케네프	億生	[散文詩(1)] 개	『創造』, 第八號, 京城 創造社臨時創造發行所	1921. 1.
3	투르게네프	羅彬	散文詩(첫제)-개(犬)-	『白潮』, 創刊號, 京城 文化社	1922. 1. 羅彬 나도향의 필명
4		孫晉泰	[투르게네프散文詩抄 (-)] 개(The Dog)	『金星』	1924. 5. 24.
5	투르게네프	金尙鎔	[散文詩 ④] 개	『東亞日報』	1932. 2. 18.
6		樹州	개	『朝鮮中央日報』	1933. 8. 22. 樹州 변영로의 아호

71) 윤준 엮고 옮김, 『영국 대표시선집』, 서울: 실천문화사, 2016, 107면.

72) 김억은 필자 조사에 의거하는 한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개」에 대한 총 3편의 번역을 남기고 있다. 두 편은 【표 8】에서 밝힌 것과 같으며, 나머지 한 편은 金岸曙譯, 『투르게네프 散文詩』(弘字出版社, 1959)에 수록되어 있는데, 확인 결과 세 편 모두 이석훈 독본의 「개」와는 문체가 달랐다.

이석훈의 번역임을 확신하고 나면 왜 이석훈이 [주석]에서 번역의 어려움, 특히 러시아어 번역의 어려움을 상술하고, “그래서 여기 보는바와같이 有名한 「뚜르게네프」의 散文詩가 이모양으로 맛없는 散文으로 되고말았다.”(96면)라고 혹평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개」는 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Иван Сергеевич Тургенев, 1818~1883)가 죽기 1년 전, ‘1882년 12월 『유럽 通報』에 발표한 「산문시(散文詩)」 50편⁷³⁾ 중 한 편으로, 창작일은 ‘1878년 2월⁷⁴⁾이다. 폭풍이 치는 무서운 밤, 방 안에는 한 마리의 개와 개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사람, 오직 둘이 있다. 이 둘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순간 주인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의 위치를 내려놓는다.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눈은 더이상 “침승도 사람도 아닌” 그저 “똑같은 두쌍의 눈과 눈”일 뿐이며, “그리하여 (중략) 똑 같은 하나의 生命이 서로 조심조심히 다가들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95면) 이석훈은, 사람은 이처럼 무서움 속에서 고독할 때 개에게까지 인간애를 느끼는 법이므로 우리가 고독하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려고 조언한다. “生命의 부드침, 靈魂과 靈魂의 交流, 거기에 人類愛, 宇宙愛가 빛”(96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문학 지망생들에게 투르게네프의 산문시를 통해 산문시의 극도로 순수한 형식도 배우되, 그속에 담긴 철학적 의미 또한 “미득(味得)”하기를 희망했다.(96면)

한편, 이석훈은 김억이 해방 전에 간행한 『꽃다발』(1944)이라는 ‘조선 여류한시선집’에서 허난설헌 외 7인의 한시와 번역본도 수록하였다. 구체적인 수록작은 아래 표와 같다.

73) 투르게네프 저, 李徹 譯, 『뚜르게네프全集』, 5, 서울: 尙書閣, 1974, 436~437면과 金岸曙 譯, 위의 책, 10면에는 ‘51편’이라고 되어 있으나 단국대학교 이항재 교수가 50편이라고 고시해 주셨다. 이항재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한편, 金岸曙 譯, 『투르게네프 散文詩』에는 『유럽 通報』가 아닌 “〈유럽 보지(報知)〉”(10면)로 되어 있으나 『유럽 通報』가 맞다.

74) 金岸曙 譯, 위의 책, 31면.; 투르게네프 저, 李徹 譯, 위의 책, 349면.

이석훈은 독본에서 ‘1878년 12월’이라고 기입했지만(95면) 이는 2월의 오석이다.

【표 9】 金岸曙 譯, 「꽃다발(朝鮮女流漢詩譯)」, 李石薰 編, 『古今東西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97~102면.

순번	작자	제목	작자 소개
1	許蘭雪軒	貧女の 노래	1563~1589. 남동생은 허균. 저서로는 『난설현집』 金億 曙譯, 『朝鮮女流漢詩選集 꽃다발』(1944)에 수록된 蘭雪軒, 「貧女の 노래」 네 작품 중 세 번째 작
2	三宣堂金氏	紗窓에 해지고	‘宣’은 ‘宜’의 오식. 1769~?. 호는 삼의당. 저서로는 『삼의당고』. 전라도 남원 서봉방(棲鳳坊)에서 태어나 같은 해 같은 날 출생에 같은 마을에 살던 담락당(湛樂堂) 하립과 혼인.
3	雲楚(芙蓉)	탄식하는동무에게	?~?. 조선 중기 기생·시인. 본명은 김부용(芙蓉). 호는 운초. 평안남도 성천 출생. 성천의 명기. 가무와 시문에 뛰어남. 김이양(金履陽)의 인정을 받아 중유하다가 1831년(순조 31)에 기생 생활을 청산하고 그의 소설이 됨.
4	竹西	除夜	1817 추정~1851 ? . 조선 후기 여류 시인. 호는 죽서. 박종인(朴宗彦)의 서녀, 서기보(徐箕輔)의 소설. 저서로는 『죽서시집』.
5	李玉峰	七夕	?~?. 호는 옥봉. 아버지는 군수 이봉지(李逢之). 조원(趙琬)의 소설. 허난설헌과 함께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여류 시인. 15세에 소설이 돼 40세가 되기 전 임진왜란을 만나 죽은 것으로 추정.
6	師任堂申氏	故山을 돌아보며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 : 사임당은 당호. 율곡 이이의 어머니.
7	桂月	廣寒樓에서	작자가 계절인지 계화(桂花)인지 불분명.
8	李氏	梧桐나무	17세기 여성 시인 울산 이씨. 고성 군수 김성달(金盛達, 1642~1696)의 소설. ⁷⁵⁾

표의 작자 소개란은 ‘계월’과 ‘이씨’를 빼고는 모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http://encykorea.aks.ac.kr/>)에서 검색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검색어 : 작자명) 「廣寒樓에서」를 지은 작자는 불분명한데, 『조선해어화사』에는 계월로, 『대동시선』과 『해동시선』에는 계화(桂花)로 되어 있다. 계월은 평양 기녀로 감사(監司) 이광덕(李匡德, 1690~1748)의 애희(愛姬)였고, 계화는 남원의 기녀이다. 『대동시선』에 수록된 시는 아래와 같은데, 『조선해어화사』에는 1, 2구가 ‘사적금사나상루 주렴고괘계화추(乍擲金梭懶上樓 珠簾高掛桂花秋)’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⁷⁶⁾

75) 안대희, 「가슴으로 읽는 한시 오동나무」, 『朝鮮日報』, 2017. 4. 2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8/2017042803324.html)

76) 「廣寒樓에서」의 작자와 관련된 서술 및 「廣寒樓(광한루)」 한시(본문 인용 단락)는 조연숙, 『한국고전여성시사』, 서울: 국학자료원, 2011, 238·292~293면 참고.

廣寒樓(광한루)

織罷冰綃獨上樓(직파빙초독상루) 얇고 흰 비단 짜는 일 그만두고 홀로 누대에 오르니

水晶簾外桂花秋(수정림외계화추) 수정림 밖은 계화나무 꽃 피는 가을 이네

牛郎一去無消息(우랑일거무소식) 우랑은 한 번 간 뒤 소식이 없어

烏鵲橋邊夜夜愁(오작교변야야수) 밤마다 오작교 가에서 시름에 젖네

김억의 『꽃다발』에는 1, 2구가 ‘사척금사나상루 주렴고괘계화추’로 시 작되므로 『조선해어화사』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석훈은 『꽃다발』 시집에는 ‘愛歌’가 많지만, 독본에는 “各方面에 걸쳐서 取材했다”(102면)고 한다. 그래서인지 작가, 소재, 주제가 다양하다. 조선 시대 많은 한시가 있는데 특히 여류 시인들의 한시를 발견하여 번역·간행한 김억의 안목이 놀랍고, 이를 독본에 발췌·수록한 이석훈의 안목 또한 놀랍다. 시를 번역할 때의 김억의 태도는 “原詩의 뜻이나 따다가 다시 만들어놓지 않을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다.⁷⁷⁾ 즉 원시를 살리되 재창작하기로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해 현상윤(玄相允, 1893~?)은 비판했지만,⁷⁸⁾ 이석훈은 극찬한다. 즉, “翻譯의妙味가 이에이르면 頂點”(102면)이라는 것이다. 김억의 역사는 “原詩를 살리면서 創作的인 形式과 맛을 내었”(102면)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석훈은 해방기 많은 번역을 했으므로 번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詩가 가진 맛과 美를 原狀대로 옮기기는 不可能한일이다.”(96면)라는 입장이었으므로, 단순 직역보다는 오히려 역자의 창작미가 가미된 번역을 선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민요는 「자장노래」 외 2편이 수록되었다. 민요는 김소운(金素雲, 1907~1981)이 편저한 『諺文 朝鮮口傳民謠集』(1933)에서 발췌하였다. 김소

77) 金億, 「卷頭辭」, 金億 曙譯, 『朝鮮女流漢詩選集 꽃다발』, 京城 博文書館, 1944, 6면.

78) 위의 글, 5-6면.

운의 책은 목차의 각 ‘장’이 조선 각 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각 장 아래의 ‘항’은 해당 도의 중심 도시명으로 되어 있다. 독본에 수록된 3편의 민요는 “京畿地方的母謠”(103면)인 「자장노래」, “咸南의婦謠”(105면)인 「늬은처자」, ‘경상남도 창원79)의 「打麥歌」이다. 독본의 「打麥歌」는 김소운의 책과 비교해 봤을 때 7~8행, 총 2행이 누락되었다. 이석훈은 평소 민요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일본 유학(1925. 3. 이후~1926. 5. 28. 밤(혹은 6월 중순경 밤)⁸⁰⁾ 후 정주 죽섬(=애도(艾島))에 체재하던 시절, 죽섬의 민요 「섬 처녀」를 일본어로 옮겨두었다가 신문에 발표하기도 했고⁸¹⁾, 정주의 민요도 일본어로 번역하여 게재한 바 있다.⁸²⁾ 민요에 대한 그의 관심 및 소개는 해방 후 독본 편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독본에 수록된 민요를 통해서는 다양한 도의 민요를 알 수 있고, 조선 민족의 정서(“아들을 귀히여기는 어머니”(104면), “諧謔味”(106면) 등)를 파악할 수 있으며, 1년간 “農事의요령”(109면) 등도 알 수 있어 의의를 가진다.

끝으로 「時調集」에서는 성삼문(成三問) 외 23수의 시조가 수록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0】 「時調集」, 李石薰 編, 『古今東西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109~125면.

순번	제목	작자	작자 소개	주제/성격
1	首陽山 바라보며	成三問	1418-1456. 조선 전기 문신. 사육신	사육신총의가
2	窓(sic 房)안에 있는 촛불	李 堉	1417-1456. 조선 전기 집현전부제학 등 역임 문신. 사육신	〃
3	간밤에 부던바람	俞應孚	?-1456. 조선 전기 제6대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친 무신. 사육신	〃

79) 金素雲 編著, 『諺文 朝鮮口傳民謠集』, 東京: 第一書房, 1933. 1, 320-321면.

참고로 「打麥歌」는 김소운이 일본어로도 번역하였다.(金素雲 訳著, 「麦打ち唄」, 『朝鮮民謠選』, 12刷: 東京: 岩波書店, 1988, 94-95면.(1刷: 1933))

80) 이석훈의 유학 시기에 관해서는 申妮三, 「李石薰 文學 研究」, 55-78면 참고.

81) 李石薰, 「島の娘」, 『釜山日報』, 1929. 10. 30.

82) _____, 「民謠 定洲ヨイコトー生れ故郷を憶ひつゝー」, 『釜山日報』, 1930. 1. 21.

4	취찬 소리개들아	具志禎	1647~1713. 조선 후기 문신.	소리개(탐관 오리)와 대비되는 학(청빈한 삶)의 긍지
5	夕陽에 매를받고	金斗性 ⁸³⁾	金斗星 : ?~?(이칭 : 두성(斗性)) 조선 중엽 가인. 숙종 때 김천택·김수장 등과 함께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에 들어 놓았다. ⁸⁴⁾	매 사냥의 즐거움
6	꿈에왔던님	朴孝寬	?~?. 1876년 제자 안민영과 함께 3대 가집의 하나인 『가곡원류』 편찬	임(애인, 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7	玉河關 저문날에	金天澤	1680년대 말?~?. 조선 후기 『청구영언』을 편찬한 가객. 시조작가.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불들려 간 삼학사의 흥혼 청송
8	비록 못입어도	未 詳 ⁸⁵⁾		가난하여도 정직하라
9	靑山도 절로절로	金麟厚 ⁸⁶⁾	1510~1560. 조선 전기 문신. 학자	순리대로 살자
10	어버이 살아신제	鄭 辭(sic 澈)	1536~1593. 호는 송강(松江). 조선시대 우의정, 좌의정, 전라도체찰사 등 역임 문신. 문인.	부모에 대한 효도
11	新羅八百年에	未 詳 ⁸⁷⁾		왕조의 흥망성쇠에 대한 감개
12	玉에 흠이 묻어	尹斗緒	1668~1715. 조선 후기 화가. 대표 그림은 「자화상」. 윤선도(尹善道)의 증손, 정약옹(丁若鏞)의 외증조	본질의 불변성
13	十年가은 칼이	未 詳 ⁸⁸⁾		우국충정과 장부의 호기
14	삼풍은 나무끝에	金宗瑞	1383~1453. 조선 전기 함길도도관찰사, 우의정, 좌의정 등 역임 문신.	“邊疆(國境)을 지키는 武士의氣概(sic 概) ⁸⁹⁾ ”
15	자남은 보라매를	金昌業	1658~1721. 조선 후기 화가이자 문인.	“매사냥의 醜態(sic 味) ⁹⁰⁾ ”
16	閑山섬 달밝은 밤에	李舜臣	1545~1598. 조선시대 전라좌도수군절도사 등 역임 무신.	우국
17	거울날 다사한별을	未 詳 ⁹¹⁾		임(애인, 군주)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18	梨花雨 헛날릴제	桂 娘	1573~1610. 본명 이향금(李香今). 호는 매창(梅窓). 계유년에 태어났으므로 계랑(葵娘 또는 桂娘)이라고도 함. 부안(扶安)의 기생으로 개성의 황진이와 더불어 조선 명기의 쌍벽. 유희경(劉希慶)·허균(許筠)·이귀(李貴) 등과 깊은 교유.	이별한 임(유희경)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19	山은 옛산이로되	黃眞伊	?~?. 본명 황진(黃眞), 기명(妓名) 명월(明月). 개성 출신. 중종 때의 사람이며 단명한 것으로 추측.	인생무상, 무정한 임에 대한 그리움
20	세상사람들	麟平(sic 坪)大君	1622~1658. 조선 후기 제16대 인조의 셋째 아들(왕자).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에 대한 훈계
21	古人도 날 못보고	李 滉	1501~1570. 조선 전기 문신. 학자.	“고인의 實踐을 거울삼자” ⁹²⁾
22	바람이 눈을 몰아	安玟英	?~?. 조선 후기 박효관과 함께 『가곡원류』를 편찬한 가객.	매화 예찬

23	천만리 머나먼길에	王邦衍	?~?. 조선 전기 의금부도사를 역임한 문신.	임금(단종)을 향한 충성 된 마음
24	이몸이 죽고죽어	鄭夢周	1337~1392. 고려 후기 학자, 문신.	고려에 대한 정몽주의 충 절

표 안의 시조 제목은 독본에 수록된 각 시조의 초장 1구(전구)를 따서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그리고 ‘작자 소개’는 필자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을 검색하거나(검색어 : 작자명) 『인명사전』을 참고하여 간단히 정리하였다. ‘주제’는 24수 모두 유명한 시조들이라 필자가 정리한 것도 있고, 이석훈의 [감상을 참고한 것도 있으며 별도의 문헌을 참고한

- 83) 이 시조는 작자명이 불분명하다.申明均 編,李秉岐 校閱,『時調集(全)』(朝鮮文學全集 第一卷, 再版: 京城 中央印書館, 1936. 12.)에는 김두성으로 되어 있으나(132면),朴乙洙 編著,『韓國時調大事典』(上,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2)에는 박문욱(朴文郁)으로 되어 있다.(620면) 朴文郁: 조선 후기 김수장의 경경산가단에서 활동한 음악인. 시조작가.(정재호, 「박문욱(朴文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1995, 2021. 11. 20. 검색.)
- 84) 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민중편 새로운 인명사전 한국편/세계편』, 서울: 民衆書館, 2003, 89면.
- 85) 저자는 정철(鄭澈). 鄭鈺東·兪昌均 校註, 『珍本 靑丘永言』, 重版: 서울: 明文堂, 1987, 95·111면 참고.(초판 : 1957)
- 86) 「靑山도 절로절로 시조는 가집(歌集)에 따라 작자와 형식이 다르다. 가령, 김천택 편 『靑丘永言』(1728)에서는 이 시조가 무씨명(無氏名) 항목에 분류되어 있어 작자를 알 수 없고 엮시조(혹은 사설시조)로 기입되어 있다.(鄭鈺東·兪昌均 校註, 위의 책, 432·582-583면 참고.) 하지만 김수장 편 『海東歌謠』에서는 작자가 송시열(宋時烈, 1607~1689)로 되어 있고 평시조 형식이다.(김병환 편, 『海東歌謠(朴氏本) 附 永言選』, 서울: 학자원, 2017, 76면.) 한편, 申明均 編,李秉岐 校閱,『時調集(全)』 17면과 申瑛澈, 『古時調新釋 附 作者傳』(京城: 研究社, 1946.) 51면에서는 작자를 모두 김인후(金麟厚, 1510~1560)라고 하지만, 시조의 형태는 각각 평시조, 엮시조(혹은 사설시조)로 기입되어 있다. 이석훈은 申明均과 같이 이 시조의 저자를 김인후로 보았고 평시조 형태로 독본에 수록하였다.
- 87) 朴乙洙 編著, 『韓國時調大事典』, 上, 702면과 金晉郁, 「松江鄭澈詩文學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2003. 2, 94·173면을 참고 시 저자는 鄭澈.
- 88) 朴乙洙 編著, 위의 책, 707~708면 참고 시 저자는 金應河, 李舜臣, 南怡將軍 중 한 명.
- 89)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119면.
- 90) 상동.
- 91) 우리말놀이연구회, 『시조카드놀이 가투歌鬪』, 서울: 세순출판사, 2009, 87면 의거 시 저자는 정철.
- 92)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123면.

것도 있다. 그 결과 수록된 24수는 고려 말(정몽주)부터 조선 말(박효관, 안민영)까지, 다양한 시기의 작품들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수록된 시조 중에는 작자 미상으로 표기된 작품도 4편이 있었고, 저자명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는데(김두성, 김인후)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저자명을 밝혀려고 노력하였다. 작품이 다양한 만큼 주제 또한 다양하였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면 충의·도덕·자연친화·인륜·우국·연모·인생무상·훈계·시조 등이다.

문학지망생들에게 읽히기 위해 시조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지만 그 와중에 이석훈의 가슴에 들어온 시조도 있었다. 가령, ①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붙들려 간 삼학사의 충혼을 칭송한 김천택의 「玉河關 저문날에」의 경우 이석훈은 “애끓는 노래”라며 “나라가서면 忠魂碑라도 세우고싶다.”고 했다.(114면) ② 또 가난하여도 정직할 것을 주문한 정철의 「비록 못입어도」를 읽고는 “한때의 굶주림, 헐벗음을 참고, 못참는데에 사람의값이 분간된다. 銘心하여 處世하고 싶다.”(115면)며 자기 자신에게 다짐한다. ③ 또 다른 정철의 시조 「아버이 살아신제」의 경우는 [감상에서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등장하는 ‘자욕양이친부대(子欲養而親不待)’라는 한자성어의 뜻 풀이를 하는데, 실제 본인의 다 하지 못한 효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입되어 있는 듯하다.⁹³⁾ ④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을 훈계하는 내용의 「세상사람들」이란 시조를 읽고는 “그랬으면한다. 남의 흥보는 熱情을 제함고치기에 기우렸으면, 얼마나 이世上은 더 아름다워 질까.” 하였다.(122~123면) 이석훈은 일제 말기와 해방기에 못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조가 가슴에 들어온 듯하다.

한편, ⑤ 김두성의 「夕陽에 매를받고」의 경우 이석훈은 “時調도 이 경지에 이르면 훌륭한詩”라며 극찬한다.(113면) 시라고까지 느끼게 된 이유

93) 이석훈과 그의 아버지는 애증의 관계였다. 이에 관해서는 이석훈이 아버지의 죽음과 그 장례식을 형상화한 일본어 사소설 「즐거운 장례」에 잘 드러나 있다.(李石薰, 「楽しい葬式」(上)(中)(下), 『京城日報』, 1932. 9. 3~4·6.)

는 시조에 등장한 ‘황혼’과 ‘방울소리’라는 어휘 때문이다. 이석훈은 이들 어휘가 만들어내는 대목에서 “雄壯”(113면)함을 느낀다. 그런데 시조에 사용된 ‘황혼’과 ‘방울소리’는, 이석훈이 「가을과鄉愁」(1932)라는 자신의 수필에서 고향의 쓸쓸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어휘이기도 했다. 매 사냥의 즐거움을 그린 「夕陽에 매를받고」와 고향의 가을, 특히 황혼 무렵의 추억을 그린 「가을과鄉愁」는 작품의 주제는 물론 분위기가 매우 다르지만 동일한 어휘가 그려내는 풍경 속에서 어딘가 비슷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시조 전문과 「가을과鄉愁」의 해당 대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夕陽에 매를받고 내건너 산넘어서
평날리고 매부르니 黃昏이 거의로다.
어대서 반가운 방울소리 구름밖에 들려라.⁹⁴⁾

여러분은 Browning의 Love Among the Ruins , 란 Love is Best! 로 끝맺은 노래를 記憶하는가? (중략) 그 노래의 背景으로 敍述된「로마」는 Campagna의 뜰에 옛날「로마」帝國의 極盛時의 榮華는 간곳없고, 다만 그 자취만의 荒涼한 廢墟가 歸路에든 牧羊의 방울 소리와 함께 저물어 가는 고요한 黃昏의 힘 없는 빛에 쌓여 있을때 사람의 눈을 피하는 젊은 두 男女가 사랑을 속삭이는 그 光景만을 잠깐 想像해다고 // (중략) //

그 城기슭에 앉으면 눈아래 西境川의 뜰에 구비치는 黃金의 물결이 한 눈에 들고 멀리 凌漢山 그늘로 사라진 郭山을 통하는 「新作路」에는 이른 저녁을 定州서 마치고 어실령 어실령 짐실고 가는 牛車의 땡그렁거리는 방울소리가 바람결에 따라 높고 얇게 들려오는 것이었다.⁹⁵⁾

「가을과鄉愁」는 고향을 떠난 지 5년이 된 시점에서 다시 가을을 맞이

94) 「時調集」,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112면.

95) 李石薰, 「가을과鄉愁」, 『東光』, 京城 東光社, 1932. 10, 339면.

한 이석훈이 이제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는 자신의 황량한 고향을 떠올리며 마치 그 경취(景趣)가 「폐허 속의 사랑(Love Among the Ruins)」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판단하여 이 둘을 연상시켜 서술한 글이다. 이석훈은 고향을 떠나 방랑을 하면서도 고향에 대한 애뜻함을 잃지 않았다. 더불어 ‘목양(牧羊)’과 같이 언제나 황혼을 즐겼다. 그러므로 이석훈의 작품에는 ‘황혼’이라는 단어 및 배경이 즐겨 등장한다.⁹⁶⁾ 「夕陽에 매를받고」라는 시조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석훈의 눈에 들어온 듯하다.

마지막으로 ⑥ 김중서의 「작풍은 나무끝에」는 “젊은이에게 즐겨부르기를 권하고싶다”는 [감상을 남기고 있다.(119면)]

4) 評論篇

【표 11】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評論篇’ 목차 및 저본 또는 첫 게재지

수록 작품명	작가명	저본 또는 첫 게재지	비고
文章論(三則)	梁柱東	梁柱東, 「文章論-數則」, 『文章』, 1939. 2.	발췌
遺言(斷章)	오오규스트·로댕	미상	
人生의目的(論文·拔萃)	톨스토이	宮島新三郎 譯, 「人生論」, 『トルストイ全集』, 第六卷(東京: 春秋社, 1919.) 혹은 톨스토이, 宮島新三郎 譯, 『人生論』(五版: 東京: 春秋社, 1923.) ⁹⁷⁾	축약 발췌
現代와詩의르네상스(詩論)	金起林	金起林, 「現代와詩의르네상스-文化部面과그것의享受範圍」 ①-⑥, 『朝鮮日報』, 1938. 4. 10, 12-16.	축약 발췌
叡知·行動과知性(評論)	俞鑣午	玄民, 「叡知·行動과知性-世紀에 빛치는말-」, (上)(下), 『朝鮮日報』, 1938. 7. 3·5.	상 : 중간부터 수록 하 : 전문 수록
作家朴泰遠論(作家論)	安懷南	『文章』, 1939. 2.	발췌
時調와數韻(時調詩學)	安自山	安自山, 『時調詩學』, 京城: 朝光	『時調詩學』 제3장

96) 「가을과鄉愁」에 관한 해제는 申媿三, 「李石薰 文學 研究」, 197면에서도 한 바 있다.

		社, 1940.	제2절(제목 : 數韻) 전문 수록
新民主主義의建國理念(政治論)	安在鴻	民世 安在鴻,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 서울: 民友社, 1945. 12.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 제4장 전문 수록

양주동(梁柱東, 1903~1977)의 「文章論(三則)」의 첫 게재지는 『文章』 창간호(1939. 2)에 수록된 「文章論-數則」이다. 「文章論-數則」은 중국의 문장가 김성탄(金聖嘆, 1608~1661)⁹⁸⁾의 글을 양주동이 발췌 번역한 것이다. 「文章論-數則」의 첫 페이지에는 김성탄의 이름이 없고 양주동의 이름만 있지만, 같은 글 마지막 페이지의 끝 부분을 보면 번역 저본(第六才子書·外書)을 밝히고 있어 이 글이 김성탄 글의 번역임을 알 수 있다. 『文章』에는 번역 저본을 “第六十字書·外書”(145면)라고 기입해 두었는데 이는 오식이다. 김성탄은 ‘명말청초 때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채(采)고 자는 약채(若采)이나, 청나라에 들어 이름을 인서(人瑞)로 고치고 자를 성탄이라 했다. 『이소(離騷)』, 『장자(莊子)』, 『사기(史記)』, 『두시(杜詩)』, 『수호지(水滸志)』, 『서상기(西廂記)』 등에 대해 각각 비평을 하여 성탄육재자서(聖嘆六才子書)로 내놓았다.’⁹⁹⁾ 양주동은 김성탄의 문장 비평 능력을 다음과 같이 극찬하였다.

그의 文章 批評은 可謂 東西·古今에 그 類例를 보지 못할 만한 才氣 橫溢하는 奇文·妙文, 아마 文章論으로 千古에 一人이라 할것이다.¹⁰⁰⁾

97) 출판사가 동일한 미야자마 신자부로(宮島新三郎, 1892~1934) 번역의 두 「인생론」은 판본 비교 결과 겹표지만 다를 뿐 동일한 책이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은 이후 하라 히사이치로(原久一郎, 1890~1971)에 의해서도 번역되었으나, 이석훈 편 독본의 글과 비교해 봤을 때 이석훈은 이 책을 번역 저본으로 삼지는 않은 듯하다.(原久一郎 譯, 『大トルストイ全集』, 第十五卷, 東京: 中央公論社, 1939.)

98) 김성탄의 생몰 연대는 장소방(張小芳)·육림(陸林), 김영 역, 『김성탄평전』, 서울: 토담미디어, 2015, 2면 참고.

99) 임종욱 편저, 김해명 감수, 『중국역대인명사전』, 서울: 이회문화사, 2010, 190면.

100) 梁柱東 撰, 『世界奇文選』, 서울: 探求堂, 1955, 281면.

그러므로 양주동은 그의 글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文章』 창간호에 「文章論-數則」이란 제목으로 번역 게재하였던 것이다. 그 뒤 양주동은 『文章』 2호부터 「近古文選-東西奇文譯鈔」라는 글을 총 10회에 걸쳐 연재하였는데(1939. 3~1939. 12), 여기서도 김성탄의 글을 3회나 번역하여 연재하였다.(『文章』 2호, 5호, 7호) 「近古文選-東西奇文譯鈔」에서 번역된 글들은 해방 후 『世界奇文選』이라는 단행본으로 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성탄의 글은 제목이 바뀌기도 하고 문장도 다듬어졌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2】 『文章』에 게재된 양주동 번역 김성탄의 글과 해방 후 양주동의 번역서 『世界奇文選』에 수록된 김성탄의 글

『文章』			『世界奇文選』		
권호, 연월	본문 제목	원저자/번역 저본	본문 제목	원저자	번역 저본
2호, 1939. 3	「近古文選-東西奇文譯鈔」 [序二首] • 베를렌느詩集序 • 第六才子書序 一, 古人을 慟哭함 二, 後人에게留贈함	Francois Coppée 金人瑞	• 「西廂記」序 一, 古人을 통곡함 二, 後人에게留贈함	金聖嘆	「水滸·西廂」의 序와 外書 및 西廂評文 中의 一斑 ¹⁰¹⁾
5호, 1939. 6	「近古文選(四)-東西奇文譯鈔」 [戲文二題] • 不亦快哉 • 水滸傳叙	第六才子·拷艷 金聖嘆	• 不亦快哉 • 「水滸傳」叙	金聖嘆 金聖嘆	
7호, 1939. 8	「近古文選(六)-東西奇文譯鈔」 [文談(其二)] • 文·才·批評	水滸外書一	• 「水滸傳」外書	金聖嘆	

이석훈은 「文章論-數則」을 독본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시 3절로 나누었고, 각 절의 해당 부분을 요약 수록하였다. 그러므로 독본에 수록된 글의 제목이 「文章論」 ‘三則’이다. 그리고 요약 수록하는 과정에서 이

101) 위의 책, 281면.

석훈은 「文章論數則」의 내용을 역순으로 수록하였다. 즉, 독본에 수록된 각 절의 내용, 1절의 ‘문장의 이당취수(移堂就樹)의 법, 월도회랑(月度廻廊)의 법, 갈고해예(羯鼓解穢)의 법’과 2절의 ‘붓으로 쓰되 이름과 이르지 못함의 대조’ 그리고 3절의 ‘홍운탁월(烘雲托月)의 법’은 「文章論數則」에 서는 역순으로 등장한다. 이석훈은 문학지망생들에게 문장 작법을 더욱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을 쓴 듯하다. 더불어 이석훈은 각 절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감상에 정리하여, 비유(譬諭)로 서술되어 있는 김성탄의 문장 작법을 쉽게 풀이하였다.

(一)은主體와 客體의 重輕順序, 數衍等을말함이다. (二)도亦是 그와비
 슷하나 여기서는 「컨트라스트(對照)를 強調했다. (三)은適適한 表現을
 強調했고, 나아가 含蓄있는 表現을重要視했다.¹⁰²⁾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遺言(斷章)」의 원본은 미 상이다. 이석훈이 원서를 보고 직접 번역했을 수도 있고 일역서를 보고 조선어로 중역했을 수도 있으며 이미 번역된 책이나 글에서 발췌했을 수도 있다. 독본에 수록된 로댕의 「遺言」은 제목과 같이 ‘단장(斷章)’ 형식으로 즉, 몇 줄씩의 산문체로 토막이 지어져 있다. 이 글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이 예술가들에게 당부하는 글인데, 읽고 있으면 큰 교훈과 위로를 준다. 이석훈은 [감상에서 “젊은사람, 特히 藝術家되기를 志望하는 젊은사람으로 깊이 銘心할만한 敎訓”(135면)이라고 했다.

레프 톨스토이(Leo Tolstoy, 1828~1910)의 「人生의目的(論文·拔萃)」은 톨스토이의 책 “人生論에서 몇節을 떼것이다.”(141면) 톨스토이의 ‘인생론’(1888)의 “원제는 ‘삶에 관하여’이다.”¹⁰³⁾ 이석훈은 미야지마 신자부로

102) 梁柱東, 「文章論(三則)」,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 (決定版), 132면.

103) 김선명, 「간행인의 말」, 레프 톨스토이, 방교영 역, 『인생론-삶에 관하여』, 서울: 뿌쉬긴하우

(宮島新三郎)가 번역한 「人生論」을 참고하여 중역한 듯하다. 「人生的目的」과 미야지마 신자부로 역의 「人生論」을 비교해 보면, 미야지마 신자부로 역의 「人生論」에서 특히 2장과 15장을 축약하여 발췌 번역하였다. 일역서 2장의 제목은 「인생 유일의 목적(人生唯一の目的)」이므로 독본의 「人生的目的」이란 일역서 2장의 제목을 줄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톨스토이가 조선 문단 및 조선 문인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한데 이석훈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석훈이 외국 문학 중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이었고,¹⁰⁴⁾ 『부활』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 또한 감명 깊게 보았다.¹⁰⁵⁾ 이석훈은 『부활』 외 ‘인생론’ 또한 “톨스토이의 基督敎的 博愛主義의 思想을 엿보기에 좋은 글”이며 “人生的 目的을 明確하게說明 해준다.”(141면)고 판단하여 독본에 수록한 듯하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인생론’은 톨스토이의 기독교적 박애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작가의 ‘심오한 정신과 진지한 성찰, 작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함축’¹⁰⁶⁾되어 있는 대작이다. 그래서인지 톨스토이 스스로도 이 책을 ‘『참회록』, 『나의 신앙』과 더불어 3대 걸작이라고 일컬’¹⁰⁷⁾었다. 여하튼 문학지망생을 위한 독본에 수록하기에 알맞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김기림의 시론 「現代와詩의르네쌍스」는 김기림이 『朝鮮日報』에 6회에 걸쳐 게재한 「現代와詩의르네쌍스-文化部面과그것의享受範圍」(1938. 4. 10, 12~16.)를 이석훈이 부분 발췌하여 짜깁기한 글이다.(2회 : 끝에서 두 문단, 3회 : 앞부분과 뒷부분, 4회 : 앞부분, 6회 : 뒷부분) 짜깁기된 글을 살펴보면 문단 간의 긴밀성을 위해 원본에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원본의 일부 단어가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¹⁰⁸⁾ 독본에 수록된 글의

스, 2020, 9면과 방교영, 「역자 후기」, 레프 톨스토이, 방교영 역, 같은 책, 264면.

104) 李石薰, 「設問 讀書設問」, 『朝光』,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1937. 3, 259면.

105) _____, 「名士 漫問漫答」, 『朝光』,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1938. 11, 330면.

106) 김선명, 앞의 글, 같은 면.

107) 상동.

108) 가령 다음과 같다.

주된 내용은 김기림이 시인들에게 당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릇된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경계를 시키는 부분과 문화 전체에 가지는 시교양의 중대성 등이다. 이석훈 역시 교육적 의미로서 시가 가지는 중요성에 동감을 표한다.(147면)

유진오의 평론 「叡知·行動과知性」 또한 유진오가 『朝鮮日報』에 2회에 걸쳐 게재한 「叡知·行動과知性-吾紀에붓치는말-」(1938. 7. 3, 5.)을 이석훈이 부분 발췌하여 짜깁기한 글이다. 유진오의 이 글은 역사적 전환기에 지성을 옹호하고 지성과 행동의 결합의 중요성을 언급한 수준 높은 글이라고 판단된다.

안회남(安懷南, 1910~?)의 「作家朴泰遠論」은 제목 그대로 안회남이 박태원을 논한 글이다. 글에서 안회남은 박태원의 소설적 기교는 백미이지만 그의 작가적 태도는 개성/사상이 결핍되어 있다며 사상의 적극성을 희망한다. 이석훈은 이 글이 ‘편애에 떨어지지 않고 공정한 감정의 균형을 얻’은 글로 보았다. 나아가 ‘한 작가를 분석할 때는 원근법이 정당하다고 한다.(158면) 그런데 안회남의 이 글은 이석훈의 독본이 개정판(1948)을 낼 때 빠진다. 아마 해방기 안회남의 정치적 이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안회남은 ‘1944년 9월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 복구주 탄광으로 강제 징용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귀국하였는데, 1946년에는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소설부 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하다가 1947년 월북’¹⁰⁹⁾하였다. 안회남 외에도 이른 시기 월북한 작가들의 작품은 1948년 독본 개정판에서

ex) 【표 13】 김기림 시론 「現代외詩의르네상스」의 첫 게재본과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야-』(決定版) 수록본 비교

金起林, 「現代외詩의르네상스-文化部面과 그것의享受範圍」 ①-⑥, 『朝鮮日報』, 1938. 4. 10, 12-16.	金起林, 「現代외詩의르네상스(詩論)」,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야-』(決定版), 초판; 서울: 白民文化社, 1947.
2회 12일자 : 이러한 混亂속에서~	141면 : 今日의 混亂속에서~
3회 13일자 : 大戰以後~	143면 : 一次 大戰以後~
6회 16일자 : 우리는 여기서다시한번 詩의~	146면 : 끝으로 우리는 시의

109) 윤병로, 「안회남(安懷南)」,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1997, 2021. 11. 20. 검색.

대체적으로 빠지는데(【표 2】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 판본별 목차’ 참고) 이에 관해서는 추후 고를 달리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안자산(安自山, 1886~1946)의 「時調와數韻」은 안자산이 1940년 조광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한 『時調詩學』의 제3장 제2절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제3장 제2절의 제목은 ‘數韻’이므로 독본의 제목은 이석훈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임의로 바꾼 것으로 여겨진다. 안자산의 『時調詩學』은 그가 『朝鮮日報』에 6회에 걸쳐 같은 제목으로 연재한 글에(1939. 10. 5, 6, 7, 10, 11, 12.) 살을 더 붙여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신문 연재본을 살펴보면 이후 간행된 단행본 목차의 장, 절과 거의 비슷한 제목이므로, 안자산은 신문에 연재할 때부터 이 글들을 이후 단행본으로 묶어 출판할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4장까지 기술하고 연재를 마쳤는데 이후 간행된 『時調詩學』은 제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문 연재에서의 제4장은 책에서는 제7장이 되어 있다. 단행본의 제3장(組織) 제1절(體段)과 제2절(數韻) 부분은 신문 연재 4회에 등장하는데,¹¹⁰⁾ 신문에서도 제3장 제2절의 제목은 단행본과 동일한 ‘數韻’이었다. 『時調詩學』은 “최초의 시조연구서”¹¹¹⁾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조시(時調詩)의 유래, 조직, 수운, 율조(律調), 성조(聲調), 종류(種類), 시가사(詩歌史) 등 시조를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독본에 수록된 ‘수운’ 부분에서는 음수(音數)가 시조시의 유일한 조건임을 밝힌 후, 음수의 정의, 정형과 부정형의 대별, 정형을 위주로 한 시조의 구성(3장 6구 45자) 등을 그림과 예시를 통해 아주 쉽게 서술하고 있다. 조선 시대 시가 문학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론인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의 「新民主主義의建國理念」은 그의 저서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서울: 민우社, 1945. 12.) 제4장(결론)의 전문을 수록한 것이다. ‘신민주주의’는 독립운동가이자 언

110) 安自山, 「時調詩學 ④ 數韻과音樂의關係」, 『朝鮮日報』, 1939. 10. 10.

111) 이태진, 「안확(安廓)」,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1997, 2021. 11. 20. 검색.

론인이었던 안재홍이 ‘해방 이후부터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주창한 정치적 이념이다. 이 이념은 1920년대부터 안재홍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지만 해방을 맞이해 “초계급적(超階級的) 통합민족국가(統合民族國家)”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배계급 본위였던 과거의 민족주의와 다른 새 민족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안재홍은 신민족주의를 신민주주의와 동질이체(同質異體)라고 표현하였다.¹¹²⁾ 조용만은 안재홍이 일제강점기 내내 청철을 지켜 민중의 숭앙이 대단하였다고 한다.¹¹³⁾ 그래서 그는 해방이 되자마자 해방 당일 저녁에 조직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建準)에서 부위원장을 맡는다.¹¹⁴⁾(위원장 : 여운형) 하지만 건국준비위원회가 점차 좌경화되어 가자 불만을 품은 그는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1945년 9월 1일 조선국민당(朝鮮國民黨)을 창당하였다.¹¹⁵⁾ 안재홍의 조선국민당은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내걸었으며, 안재홍 스스로도 9월 4일 발표 성명을 통해 민족주의 진영의 대동단결을 위한 조선국민당 창당의 기본 이념은 신민족주의임을 밝혔다. 그의 저서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는 9월 22일에 탈고, 동년 12월에 간행된 책으로, 안재홍은 이 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민족주의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한국은 현재 식민지배와 해방이라는 “동일예속(同一隸屬)과 동일해방(同一解放)에서, 모든 진보적(進步的)이요 반항제국주의적(反抗帝國主義的)인 지주와 자본가와 농민과 노동자가, 한꺼번에 만민공생(萬民共生)의 신발족(新發足)을 함을 요청하는 역사적 명제하에 있”으므로 “현대적(現代的) 의의(意義)에 발전시키어”¹¹⁶⁾ 신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독본에 수록된 「新民主主義의建國理念」은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

112) 윤세원, 「신민족주의(新民族主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1995, 2021. 11. 20.

검색.(개정 : 후지이 다케시, 2012)

113) 趙容萬,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308면.

114) _____, 『京城野話』, 295면.

115) 이정식, 「국민당(國民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1995, 2021. 11. 20. 검색.

116) 여기까지 서술과 인용은 각각 윤세원, 앞의 글.

의 결론으로 그 대의는 “朝鮮은階級對立이 있을수없고, 따라서階級鬭爭에 依한 로시아의革命도 있을수없음”, 그러므로 “全民族統合의 新民主國家建設이 要請”된다는 것이다.(169면) 이 글에 대해 이석훈은 오직 문장적 측면에만 국한된 다음과 같은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生硬한悲憤慷慨도없고, 內容空疎한高言壯談도아니요, 끝까지 冷徹하고도 理路整然한愛國至誠에넘치는글이다. 이른바 「빅스타일」(大文章)은 못되나, 빈틈없이 山골물이 졸졸흐르듯하는 맛있는文章이다.”(170면) 안재홍의 정치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생략한 채 오직 문장적 측면에만 국한시켜 이상의 감상을 남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책은 문학지망생들을 위한 문학감상독본인 만큼 자신의 주관적인 정치관을 [감상에서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하지만 이런 외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석훈은 해방 정국에서 자신의 정치성을 선명하게 드러낸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지성인이었던 그가 1947년 초까지 칩거한 채 주로 가명으로 번역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하더라도, 당대 정치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감각과 판단은 있었을 것이다.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 혹은 정치 이념 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였고, 정주는 해방이 된 후 외세에 의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땅이 되었음을 상기해 보면, 그 또한 해방기 정국에서 정치에 그저 무감각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대 해방 정국에서 그가 지지하던 정치인 및 정당 혹은 정치 이념은 무엇이었을까? 함부로 단언할 수 없는 무척 조심스러운 문제이지만, 이는 그가 펴낸 문학감상독본에 수록한 글, 특히 정치 평론이나 칼럼의 성격 등을 통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안재홍은 해방 후에는 정치인이 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시대일보』의 논설위원으로 『조선일보』의 주필(主筆)¹¹⁷⁾ 필봉을 휘둘렀던 유명한

117) 趙容萬,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306면.

언론인이자 사학자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다. 그러므로 독본을 구성하던 이석훈이 안재홍의 글을 정치론의 한 표본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필자는 이석훈이 굳이 안재홍의 「新民主主義의建國理念」을 독본에 수록한 데에는 이와 같은 형식적 이유를 초월하는 모종의 내면적 이유 또한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이는 독본에 수록한 칼럼 또한 하필 당대 『京鄉新聞』의 고정 칼럼란인 「餘滴」란에 게재된 칼럼이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생각해 보면, 그 내면적 이유는 좀 더 선명히 다가온다. 안재홍이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내세운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의 이념의 의미(조선은 계급 대립이 있을 수 없고 전민족통합의 신민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점차 좌경화되어 가는 건국준비위원회와는 ‘거리’를 둔 안재홍의 이력, 그런 안재홍의 글을 당대 많은 정치 평론들을 제치고 독본에 수록한 점, 동시에 『京鄉新聞』 「餘滴」의 칼럼 또한 수록한 점, 『京鄉新聞』은 이 시기 좌우연합으로 말해지는 중도적 성격의 언론 매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우 ‘거친’ 생각이지만 이석훈의 해방기 정치색은 박헌영, 여운형 등과는 거리를 둔, 즉 국민당의 안재홍(우익) 쪽에 가까웠으며, 이석훈이 생각한 민족/국가 통일 방식은 좌우 합작 나아가 초계급을 통한 전민족통합의 신민주국가 건설이 아니었을까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조사 및 연구가 요청된다.

5) 古典篇

【표 14】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詩歌篇’ 목차 및 저본 또는 첫 게재지

수록 작품명	작가명	저본 또는 첫 게재지	비고
恨中錄(古典隨感拔萃)	惠慶宮洪氏	惠慶宮洪氏 原作, 가람 李秉岐 註解, 「恨中錄」, 『文章』, 1939. 2.	‘其一’ 전문 수록
渡江錄(日記文學)	朴趾源	朴趾源 原作, 李允宰 註譯, 「渡江錄」, 1·10, 『文章』, 1939. 11. · 1940. 12.	1회, 10회 각각 발췌
春香傳(小說拔萃)	作者未詳	「春香傳集(其二) 古本 春香傳(卷之上)」, 『文	‘其二’ 앞

		章』, 1941. 1.	부분 수록
洪吉童傳(小說拔萃)	許筠	미상	
靑山別曲(高麗歌詞)	解說 金台俊	金台俊 校註, 『高麗歌詞』, 京城: 學藝社, 1939.	전문
鄭石歌(高麗歌詞)	解說 金台俊	상동	전문
토끼화상(歌謠)	解說 李熙昇	李熙昇, 「歌詞“토끼화상”의 解說」, 『朝鮮文學研究鈔』, 서울: 乙酉文化社, 1946.	발췌

고전편에 수록된 「恨中錄」, 「渡江錄」, 「春香傳」은 모두 첫 게재지가 『文章』이다. “《文章》은 시·소설의 창작만이 아니라 우리 고전문학의 주해(註解)와 연구논문, 희귀자료를 적지않게 발굴 게재했」는데,¹¹⁸⁾ 이 덕분에 이석훈의 독본 역시 조선 문학사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작품들을 두루 수록할 수 있었다. 우선, 「恨中錄」은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正祖)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가 집필한 산문으로, ‘조선 시대 한글 문학의 대표작이자 영·정조 시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¹¹⁹⁾이다. 「恨中錄」 연구의 선편을 권 것은 가람 이병기로, 그가 『文章』 창간호에서부터 12회에 걸쳐(1939. 2~1940. 1) 「恨中錄」을 연재하고 주해를 붙이면서부터이다. 독본에 수록된 부분은 그 일부로, 『文章』 창간호에 실린 「恨中錄」 첫 회본이다. 첫 회본은 ‘其一 -그 序文과 그 자랄때’와 ‘其二 -揀擇에 뽑히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독본에는 ‘其一’이 수록되었다. 이석훈은 이 작품을 고매하고 아담한 품격을 가진 내간체문학의 전형으로 보았다.(180면)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도강록」 역시 첫 게재지는 『文章』이다. 국어학자인 한희 이윤재(李允宰, 1888~1943)가 순한문체로 되어 있는 ‘도강록’을 한글로 번역하고 주역하여 총 10회에 걸쳐 『文章』에 연재하였는데(1939. 11~12, 1940. 1~5, 7, 11~12.) 이석훈은 이 중 첫 회본과 마지막 회 부분을 각각 발췌하여 독본에 수록하였다. ‘도강록은 연암(燕巖) 박지

118) 최덕고 편저, 『한국잡지백년』, 3, 초판; 서울: 현암사, 2004, 26면.

119) 정병설, 「한중록, 조선의 산문 고전」, 혜경궁 홍씨 저,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 1판 2쇄; 과주: 문학동네, 2010, 443면.

원이 집필한 연암집(燕巖集) 중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일부이다.¹²⁰⁾ 열하일기는 조선 정조 4년(1780) 여름, 청국(淸國) 건륭제(乾隆帝)의 70세 생일을 맞아 이를 축하하기 위한 외교사절단을 중국으로 보냈을 때, 여기에 참가하게 된 박지원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한 청나라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생생하게 기록한 여행기이다.’¹²¹⁾ ‘열하일기는 박지원의 여행 중 일기와 그 곳 명사들과 담론한 것 등 총 26권인데, 이 중 도강록은 압록강을 건너 요양(遼陽)까지 이르는, 곧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기¹²²⁾이다. 독본에 수록된 부분은 6월 24일 일기 앞 부분과(『文章』, 1회) 7월 초(初)8일 일기 뒷 부분 그리고 7월 9일의 일기이다.(각각 『文章』, 10회) 이석훈은 “지금은 鐵橋가 가로놓여 개천건드스키건너다니는 鴨綠江을, 그렇듯 건스기 힘들어하던 옛날 일이 눈앞에 서언하다. (중략) 간결한가운데 要點은 다 描寫하고 있다. 紀行文으로서도 매우 재미있다.”(189면)는 [감상을 남겼다.

한편, “春香傳은 가장 坊間에 愛讀되며 노래로서 歌唱되며 演劇으로서 구경되여오는것이기 때문에 그種類도 여러 가지”이다. 김태준(金台俊, 1905~1950)은 그 종류를 “十餘種” 정도로 꼽고 있다.¹²³⁾ 이 중 3가지 종류가 『文章』에 4회에 걸쳐 수록되었다.

「春香傳集(其一) 古寫本 春香傳(卷之全)」, 『文章』, 京城 文章社, 1940. 12.

「春香傳集(其二) 古本 春香傳(卷之上)」, 『文章』, 1941. 1.(계속)

「春香傳集(其二) 古本 春香傳(卷之上)」, 『文章』, 1941. 3.(완결)

「春香傳集(其三) 普成專門學校藏本 春香傳(單)」, 『文章』, 1941. 4.

120) 李允宰, 「渡江錄」, (1), 『文章』, 京城 文章社, 1939. 11, 214면.

121) 김명호, 「열린 마음으로 드넓은 세계를 보라-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김명호 외 13명,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1, 고전문학 상, 서울: 휴머니스트, 2006, 263면.

122) 李允宰, 「渡江錄」, (1), 『文章』, 214면.

123) 인용은 각각 金台俊, 『原本春香傳』, 再版: 京城 學藝社, 1939, 11~12면.

이석훈의 독본에 수록된 「春香傳」은 이 중 「春香傳集(其二) 古本 春香傳(卷之上)」이다. 2절로 나누어 수록하였는데, 1절은 춘향전의 앞 부분이고(『文章』, 1941. 1) 2절은 “이도령이 御史가되어 乞人을 假裝하고, 獄에 가친 春香이를 보러온 장면이다.”¹²⁴⁾(『文章』, 1941. 3.) 이석훈은 「春香傳」이 “이야기가 곧 노래調로된 소위 歌詞體의 代表的 文章”이라 보았다.(194면) “노랫調의 녀두리를 吟味”하길 권하고 있다.(197면)

「토끼화상」 노래는 “소설「토끼傳」中の 一節을 歌詞化한것”으로¹²⁵⁾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 간을 구하러 육지로 가기를 자청한 자라(별주부)에게 토끼의 모양을 가르쳐 주고자 토끼화상을 그리는 장면을 노래화한 것이다.(221면) 「토끼화상」의 초출은 국어 학자 이희승(李熙昇, 1896~1989)이 『文章』 창간호에 발표한 「[朝鮮文學研究鈔(一)] 歌詞「토끼화상」의 解說」이지만(특히 3장 ‘原歌’), 원본 비평 결과 이석훈은 해방 후 이희승이 발간한 단행본 『朝鮮文學研究鈔』(서울: 乙酉文化社, 1946.) 1장을 저본으로 삼아 독본에 수록하였다.(저본과 독본에 수록된 글을 살펴보면 한 문장이 누락된 채 독본에 수록됨.) 이석훈은 이 노래가 한문의 영향은 있지만, 공상과 낭만의 문학적 표현에서 조선 사람의 감정이 진득히 흐르고 있다고 하였다.(222면)

다음, 두 편의 고려가사인 「靑山別曲」과 「鄭石歌」는 저본이 모두 김태준(金台俊, 1905~1949)이 교주(校註)한 『高麗歌詞』(京城: 學藝社, 1939.)이다. 두 편 모두 전문을 수록하였으나, 단어 풀이는 김태준의 주석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고 이석훈이 요약해서 가져온 것도 있다. 「靑山別曲」의 경우, 이석훈은 세속과 인연을 끊는 선비의 시름을 노래한 것으로 고아한 시상과 격조가 고전이라 칭할 만하다고 했다. 또 외로운 청산에서 새도 쪼고, 바다에서 어패(魚貝)를 잡아먹고 살리라는 체념이 가슴에 스며든다

124) 作者未詳, 「春香傳(小說拔萃)」,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197면.

125) 李熙昇, 「[朝鮮文學研究鈔(一)] 歌詞「토끼화상」의 解說」, 『文章』, 1939. 2, 152면.

고 하였다.(215면) 「鄭石歌」의 경우 “「딩아돌아 당금에 계상이라云云」의 律調가 素朴하고도 古代歌로의 운치가 있다.”라고 했다.(220면)

주지하다시피 김태준은 학자이자 사상가였다. 특히 사상적 측면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공산주의를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8·15 광복 후에는 ‘조선문학가동맹이 개최한 전국문학자대회 준비위원, 조선문학가동맹 중앙 집행위원회 평론분과 위원장, 남로당 문화부장, 그 외 다양한 좌익 단체에 간부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1949년, ‘남로당의 문화공작 책임자가 되어 남로당 특수정보부를 조직하고 지리산 유격전구의 공작활동 등을 지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수색의 군 처형장에서 총살형에 처해지고 말았다.’¹²⁶⁾ 그러나 국문학 연구에서 남긴 그의 업적은 인정받았음일까. 작품에 대한 그의 해설은 독본이 ‘개정판’, ‘추가 개정판’을 낼 때 월북한 작가들의 작품이 통째 사라지는 비운과 다르게 끝까지 남는다.(비록 그의 이름 석 자는 지워진다.)

끝으로, 허균의 「洪吉童傳」은 작품의 맨 앞에서부터 흥 판서의 첩 ‘초란’이 자객을 시켜 홍길동을 죽이려 하다가 길동이 자초지종을 안 후 자객을 죽이고 그길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집을 떠나는 장면까지가 수록되어 있다. 저본은 알 수 없다. 이석훈은 이 작품이 “漢文體의 影響이 짙으나 敘述은 贅였”고 “一種 革命 小說的인 테에마를가졌다”고 보았다.(210면) 그런데 이석훈은 “이小說이 嚴格한意味에서「古典」이 될런지는 疑問”이라고 한다.(210면) 그가 말한 ‘엄격한 의미’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靑山別曲」에 남긴 그의 감상과 비교해 보면 이석훈이 생각하는 ‘고전’의 기준과 의미가 조금은 파악된다.(고아한 시상과 격조) 그런데 오늘날 허균의 「洪吉童傳」은 이석훈과는 ‘다른 맥락’에서 비판되고 있다. 즉, 『洪吉童傳』은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이윤석 전 연세대 교수의 주장인데 그의 주장과 논거는 신빙성이 높

126) 인용은 각각 김용직, 『김태준 평전-지성과 역사적 상황-』, 서울: 일지사, 2007, 609-610면.

다.¹²⁷⁾ 『洪吉童傳』에 ‘창조된 고전’의 면모가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1947년 이석훈이 펴낸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特別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를 텍스트로 삼아 수록된 목차를 파악하고, 이를 ‘개정판’(1948), ‘추가 개정판’(1955)의 목차와 나란히 제시해 보았으며, 초판(決定版)에 수록된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분석 및 해제해 보았다. 그 결과 이 책은 부제목 그대로 문학 지망자들에게 문학 안내서로서 펴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문학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라면 선배 문인들의 작품을 부지런히 애독하며 감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에는 조선어로 된 읽을 거리가 부족했고, 일제 말기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인해 나이 어린 사람들은 물론 청년들까지도 조선어에 능수능란하지 못했으므로, 이석훈은 선배 문인으로서 마치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은 심정으로 문학 지망생들에게 좋은 글들을 많이 소개하고자 했던 듯하다. 나아가 필자는 이석훈이 독본을 발간한 데에는 일제 말기 자신의 친일 이력을 속죄하고, 조선 문단의 발전을 위해 문장으로써 봉공하고 싶다는 의도 또한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서도 해방 직후부터 1946년까지는 가명으로 살아갔지만, 본명을 찾은 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석훈의 삶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수록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도 이석훈의 문학 감상안을 살펴

127) 이윤석, 『홍길동전의 작자는 허균이 아니다』, 한뼘책방, 2018.; 이기환, 「한글 홍길동전이 허균 작이 아닌 5+1가지 이유…400년전 다른 한문 홍길동전까지 발견됐다」, 『경향신문』, 2019. 4. 24, https://www.khan.co.kr/print.html?art_id=201904241415001, 2021. 11. 15. 검색.

볼 수 있었고, 그의 해방기 정치관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 책의 장단점 및 남은 과제를 언급하며 본론의 내용을 정리한 후 이것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 책의 장점은 1) 첫째, 현대 문학은 물론 고전, 심지어 외국 작품까지 가급적 전형이 될 만한 작품을 수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 책의 구성 방침이었다. 그리하여 이 책에는 ‘수필·기행편’, ‘소설·희곡편’, ‘시가편’, ‘평론편’, ‘고전편’ 등 다양한 문학 갈래가 골고루 배치되었고, 그 이하에는 ‘대체적으로’ 수준급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조선 문학의 경우 일제강점기 문학 잡지를 대표하는 『文章』에서 많이 가져왔으며, 외국 문학의 경우 세계적 작가의 작품을 위주로 가져왔다. 번역은 기존 번역역을 가져온 것도 있고 그 자신이 직접한 것도 있다. 또 문학 지망생들을 위한 책인 만큼 문체 ‘소개’에도 신경을 기울였다. 수필의 경우 서구적 교양과 동양적 교양이 문체에 끼치는 영향의 전범으로 김진섭과 이태준의 작품을 나란히 제시하였고, 고전에서는 한글 문학 특히 내간체문학과 한문 문학(일기 및 기행문)의 전형으로서 「恨中錄」과 「渡江錄」을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홍명희, 최남선, 이광수의 작품은 물론, 김동인, 염상섭, 카프 작가들 그리고 역사소설가의 작품을 골고루 수록하여 독본에 균형을 맞추었다.

한편, 서승희는 이석훈의 문학감상독본은 문단이 좌우익으로 양분되기 전에 나온 것이므로 단정 이후의 독본들과 달리 이태준, 한설야, 이기영, 홍명희, 정지용, 안희남, 김태준 등의 글이 고루 수록되어 있다고 했다.¹²⁸⁾ 이석훈의 문학감상독본 초판본이 단정(1948. 8. 15) 이전에 나온 것은 맞지만, 이미 문단은 조선문학동맹(좌익)과 전조선문필가협회(우익)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석훈의 독본에 그들의 글이 수록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이석훈이 좌우익으로 나뉜 작가들의 정치적 성향이

128) 서승희, 앞의 논문, 265면.

나 일제강점기 친일의 이력을 떠나 가급적 각 분야의 전형이 되는 작품을 수록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의지도 독본의 개정판(1948. 1)을 내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월북한 문인의 작품과 이광수 등의 작품은 모두 지워지고 만다. 하지만 이 때 역시 단정 수립 전이다. 초판본과 개정판 사이, 수록 작품의 변화는 추후의 과제이다.

2. 두 번째는 수록 작품마다 말미에 [주석]과 [감상]을 두어 독자의 감상을 도왔다. 이 역시 이 책의 구성 방침이었는데, 물론 [주석]의 ‘작가 소개’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친절한 어휘 풀이라든지 해설은 독자들의 감상에 편리를 제공했다고 여겨진다.

3. 원본 비평 결과, 독본에 수록된 작품들의 어휘, 맞춤법, 띄어쓰기, 문단 나누기 등은 전반적으로 저본 혹은 첫 게재지 작품과는 다르게 바로 잡히거나 수정되었다. 이는 수록된 전 작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어휘면을 대표하여 살펴보면 저본에 등장하는 일본어 표현이라든지 당대 검열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현된 단어 등은 해방을 맞아 조선어로 바뀌거나 제 모습을 찾았다. 예를 들어, 이태준의 「古甌」의 경우 저본에 등장하는 ‘우라지오스토크’(『無序錄』, 237면)는 러시아의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의 일본식 표기인데 독본에서 ‘블라지뷔스토크’(13면)로 바뀌었고, 최정희의 「소리」의 경우 초출지에 등장하는 일본어 ‘다이루’(『文章』, 168면)는 독본에서 ‘타일’(19면)로 순화되었다. 또 김동인의 「붉은山」의 경우 저본에서 ‘창가’(『金東仁短篇選』, 84면)로 표기되어 있던 어휘는 독본에서 ‘애국가’(55면)로 본모습을 찾았다. 이 외, 현대 국어에 맞춘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은 독본의 가독성을 높였을 것이다.

그런데 독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대에 맞게 원본을 고쳐 수록하는 일은 동시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저자가 처음 의도하였던 표현과 전혀 다른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태준의 「古甌」의 경

우 초출지와 독본을 비교해 보면 이태준의 처음 표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어느때나 옷자리가 올리는 법은 아니다. 더러는 넌짓이 未廣에 물러섬도 謙讓以上 自己化粧이 된다.

우리집엔 웃어른이 아니 게시다. 나는 때로 거만스러워진다. 오직 하나 나보다 나이 더 높은것은, 아버님께서 쓰시던 硯滴이 있을뿐이다. 저것이 아버님께서 쓰시던 것이거니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쳐다보면 말로만 들은, 글씨를 좋아하셨다는 아버님의 風儀가 참먹香氣와 함께 자리에 풍기는듯하다. 옷깃을 여미고 入定을 맛보는것은 아버님이 손수 주시는 教訓이나 다름 없다.

얼마동안이었는데는 진 모르나 아버님과 한때 風箱을 가치 받은 遺品이다.

(李泰俊, 「古翫」, 『無序錄』, 京城: 博文書館, 1941, 237면.)

어느때나 옷자리가 올리는법은 아니다. 더러는 스스로 아랫자리에 물러섬도 謙讓以上の 風致가 있다.

우리집엔 웃어른이 아니 게시다. 나는때로 거만스러워진다. 오직하나 나보다 나이 더높은것은 아버님이 쓰시던 硯滴이 있었을뿐이다. 저것이 아버님께서 쓰시던것이니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쳐다보면 말로만 들은 글씨를 좋아하셨다는 아버님의 風丰이 참먹香氣와 함께 자리에 그득치는 듯하다. 옷깃을 여미고 入靜을 맛보는 것은 아버님이 손수 주시는 教訓이나 다름 없다.

얼마동안이었는데는 지는 모르나 아버님과 한때 時代의 風箱을 가치 겪은 물건이다.

(李泰俊, 「古翫」, 李石薰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여-』(決定版), 12면.)

인용한 두 부분은 각각 「古翫」의 시작 부분이다. ‘웃어른’을 ‘웃어른’으

로, 한자어 ‘末席’을 국어 ‘아랫자리’로, ‘ 좋아하셧 ’을 ‘ 좋아하셨 ’ 등으로 바꾼 것은 출판 시기의 어법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 년 ’을 ‘ 스스 ’로, ‘ 自己化粧 ’을 ‘ 風致 ’로, ‘ 風儀 ’를 ‘ 風丰 ’로, ‘ 풍기는 ’을 ‘ 그득차는 ’으로, ‘ 遺品 ’을 ‘ 물건 ’ 등으로 바꾸는 것은 이태준의 의도가 잘 드러난 표현인지 의문이다. ‘ 風儀 ’를 ‘ 風丰 ’는 다른 의미이며, ‘ 유품 ’이 ‘ 물건 ’보다 문맥상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또한 한자를 잘못 심은 듯한 단어도 눈에 띄며(入定→入靜), 원문에 없는 단어도 삽입돼 있다.(時代의) 이태준의 『無序錄』은 1941년 초판 간행 이후 일제 말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재판을, 1944년에는 3판을 발행하였다. 초판본과 재판, 그리고 3판을 모두 대조해 본 결과 초판과 표현이 동일했다. 이태준은 이른 시기인 1946년에 월북했으므로,¹²⁹⁾ 이석훈이 독본을 펴내던 시기 이태준이 따로 수정했을 리도 없다. 이석훈 본인의 임의 수정이라면 이태준이 의도한 바를 그대로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렇듯 편자 이석훈에 의해서든 편집 과정에 의해서든, 저본의 표현들이 임의로 수정되어 독본에 수록된 것은 이 책의 첫 번째 단점으로 여겨진다.

2. 두 번째, [주석]의 ‘작가 소개’에서 생몰 연대 표기에 오류가 많다. 가령, 1908년생인 김진섭을 현재(1947) 44세로(12면), 1903년생인 이은상을 현재 49세로(29면), 1888년생인 홍명희를 현재 63세로 표기하는 등이다.(74면) 이러한 예는 그 외에도 많다. 해방기가 아무리 어지러운 상황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작가의 생몰 연대 오류는 작가 기본 정보에 혼란을 주므로 아쉬움이 남는다.

3. 그 외, 수록된 작품의 출처 표기가 없는 것 그리고 많은 오식 역시 아쉽다. 특히 한시에서의 오식은 해석이 달라지거나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가령, 김억의 역서 『朝鮮女流漢詩選集 꽃다발』에 수록된 竹西의 한시 「除夜에」는 “無情又遣今年去”로 시작하지만(102면) 독본에는 ‘ 遣 ’가 ‘ 道 ’로

129) 李泰俊, 「作家略歷」, 『李泰俊 文學全集 隨筆集 無序錄』, 서울, 瑞音出版社, 1988.

오식되어(99면) 뜻이 이상해졌다.

끝으로 남은 과제를 언급하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1947년에 간행된 이석훈의 독본 초판본은(결정판)은 이후 ‘개정판’과 ‘추가 개정판’의 형태로 각각 재발간된다. 그런데 ‘【표 2】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 판본별 목차’를 살펴보면 ‘초판’에 수록된 작품 중 일부는 ‘개정판’에서 사라진다. 이름을 살펴보면 주로 월북한 문인들이지만 월북을 하지 않은 정지용과 안재홍의 글도 있다. 정지용은 해방 후 현실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일까. 그리고 안재홍은 좌우합작론을 주장했기 때문일까. 지금으로서는 심정적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석훈 편 문학감상독본의 판본 비교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 두며 이상으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저서

- 『京城日報』, 『京鄕新聞』, 『東亞日報』, 『每日新報』, 『釜山日報』, 『朝鮮日報』, 『朝鮮中央日報』, 『泰西文藝新報』
- 『金星』, 『東光』, 『東方評論』, 『文章』, 『民聲』, 『白民』, 『白潮』, 『三千里』, 『新東亞』, 『新天地』, 『朝光』, 『朝鮮文學』, 『創造』, 『現代文學』
- 보리스·고르바-토프, 李石薰 譯, 『降伏없는백성』, 上, 서울: 創人社, 1947.
- 李石薰, 『殉國革命家列傳』, 서울: 朝鮮出版社, 1947.
- _____ 編, 『古今東西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야-』(決定版), 초판: 서울: 白民文化社, 1947.(재판: 1948, 3판: 1949)
- _____ 編, 『改訂版 文學鑑賞讀本-특히文學志望者를위하야-』, 5版: 서울: 世文社書店, 1952.
- _____ 編著, 『文學과鑑賞』, 서울: 青春社, 1955.
- 톨스토이, 이석훈 역, 『復活』, 上, 서울: 大成出版社, 1947.

2. 단행본

- 강영주 외 12명,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7, 현대소설 上, 서울: 휴머니스트, 2006.
- 구자황, 『근대 독본 문화사 연구』, 초판: 서울: 글누리, 2014.
- 권영민 엮, 『정지용 전집 2 산문』, 서울: 민음사, 2016.
- 金珖燮, 「비개인여름아침」, 『憧憬』, 京城: 研究書林, 1938.
- 金起林, 金澤東·金世煥 編, 『金起林 全集』, 2, 서울: 심설당, 1988.
- 金基文, 『風流의韓國』, 淸州: 藝術春秋社, 1987.
- 金東仁, 『金東仁短篇選』, 第1卷, 京城: 博文書館, 1939.
- 김만선, 『압록강』, 초판: 서울: 깊은샘, 1989.
- 김명호 외 13명,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1, 고전문학 上, 서울: 휴머니스트, 2006.
- 金秉喆,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1975.
- 김병환 편, 『海東歌謠(朴氏本) 附 永言選』, 서울: 학자원, 2017.
- 金素雲 編著, 『諺文 朝鮮口傳民謠集』, 東京: 第一書房, 1933.
- _____ 訳著, 『朝鮮民謠選』, 12刷: 東京: 岩波書店, 1988.
- 金壽長, 呂運鶴 編, 『海東歌謠 附永言選』, 서울: 奎章文化社, 1974.
- 金岸曙 譯, 『朝鮮女流漢詩選集 꽃다발』, 京城: 博文書館, 1944.
- _____ 譯, 『투르게네프 散文詩』, 弘字出版社, 1959.

- 김용직, 『김태준 평전-지성과 역사적 상황-』, 서울: 일지사, 2007.
-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초판 3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_____, 정호웅, 『한국소설사』, 1판 2쇄; 서울: 문학동네, 2002.
- _____, 『염상섭연구』, 5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_____,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1판 3쇄; 서울: 솔출판사, 2008.
- 金台俊 校註, 『高麗歌詞』, 京城 學藝社, 1939.
- _____, 『原本春香傳』, 再版: 京城 學藝社, 1939.
- 金澤東, 『鄭芝溶研究』, 서울: 민음사, 1987.
- 金澤東 외 13명, 『鄭芝溶研究』, 二刷: 서울: 새문사, 1996.
- _____, 『정지용 전집 2 산문』, 3판 7쇄; 서울: 민음사, 2013.
- 뚜르케네프 지, 李徹 譯, 『뚜르케네프全集』, 5, 서울: 尙書閣, 1974.
- 레프 톨스토이, 방교영 역, 『인생론-삶에 관하여-』, 서울: 뿌쉬킨하우스, 2020.
- 文德守, 『文章講義』, 서울: 詩文學社, 1993.
-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한설야 문학의 재인식』, 서울: 소명출판, 2000.
- 民世 安在鴻, 『新民族主義와 新民主主義』, 서울: 民友社, 1945. 12.
-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재판 23쇄; 서울: 웅진닷컴, 2002.
- 朴龍喆, 詩文學社 編, 『朴龍喆全集』, 第二卷, 京城: 東光堂書店, 1940.
- 朴乙洙 編著, 『韓國時調大事典』, 上·下,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2.
- 朴鍾和, 『多情佛心』, 三版; 서울: 乙酉文化社, 1963.
- _____, 『韓國文學全集 5 錦衫의 피·多情佛心』, 三版; 서울: 民衆書館, 1965.
- _____, 『月灘朴鍾和文學全集 10 多情佛心』, 再版; 서울: 三慶出版社, 1981.
- 박태원 편, 『中等文範』(正音社, 1946), 구자황·문혜윤 편, 『中等文範』, 광명: 도서출판 경진, 2015.
- 碧草 洪命燾, 『林巨正 第一卷-義兄弟篇(1)-』,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1939.
- 卞榮魯, 『樹州·卞榮魯文選集』, 서울: 韓振出版社, 1981.
- 『(鮮放後四年間) 出版文鑑』(出版文化特輯), 서울: 朝鮮出版文化協會, 1948.
- 성호경, 『시조문학』,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4.
- 孫晋泰 編著, 『孫晋泰先生全集』, 6, 서울: 太學社, 1981.
- 송하춘 편저,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1917-1950』,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 申明均 編, 李秉岐 校閱, 『時調集(全)』, 朝鮮文學全集 第一卷, 再版: 京城 中央印書館, 1936.
- 申瑛澈, 『古時調新釋-附 作者傳-』, 京城: 研究社, 1946.
- 安自山, 『時調詩學』, 京城: 朝光社, 1940.
- 梁柱東 撰, 『世界奇文選』, 서울: 探求堂, 1955.

- 오영식 편저,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 1945-1950』, 초판; 서울: 소명출판, 2009.
- 우리말놀이연구회, 『시조카드놀이 가투歌鬪』, 서울: 세손출판사, 2009.
- 윤준 엮고 옮김, 『영국 대표시선집』, 서울: 실천문학사, 2016.
- 이반 투르게네프, 김학수 역, 『사냥꾼의 수기/첫사랑/산문시』, 서울: 동서문화사, 2016.
- 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 조주관 역,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서울: (주)민음사, 2018.
- 이석우, 『현대시의 아버지 정지용 평전』, 서울: 푸른사상사, 2006.
- 李殷相, 『耽羅紀行 漢拏山』,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1937.
- 이윤석, 『홍길동전의 작자는 허균이 아니다』, 한뼘책방, 2018.
- 李泰俊, 『無序錄』, 京城: 博文書館, 1941, 237~241면.(再版: 1942, 三版: 1944)
- _____, 『李泰俊 文學全集 隨筆集 無序錄』, 서울, 瑞音出版社, 1988.
- 李熙昇, 『朝鮮文學研究鈔』, 서울: 乙酉文化社, 1946.
- 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민중편 새로운 인명사전 한국편/세계편』, 서울: 民衆書館, 2003.
- 임종욱 편저, 김해명 감수, 『중국역대인명사전』, 서울: 이회문화사, 2010.
- 장소방(張小芳)·육림(陸林), 김영 역, 『김성탄평전』, 서울: 토담미디어, 2015.
- 全鳳健, 『韓國戰後問題詩集』, 初版: 서울: 新丘文化社, 1961.
- 鄭鈺東·兪昌均 校註, 『珍本 靑丘永言』, 重版: 서울: 明文堂, 1987.
- 鄭芝溶, 『散文(附譯詩)』, 서울: 同志社, 1949.
- 조연숙, 『한국고전여성시사』, 서울: 국학자료원, 2011.
-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격동기의 文化界 祕話』, 서울: (주)범양사 출판부, 1988.
- _____, 『京城野話』, 서울: 도서출판窓, 1992.
- 『靑丘永言·海東歌謠 合本』, 서울: 圖書出版 亞細亞文化社, 1974.
- 찰스·렘, 「베니스의 商人」, 『섹스피어抄話集』, 金炯國 譯, 同心社, 1947.
- 崔南善, 『白頭山觀參記』, 京城: 漢城圖書株式會社, 1927.
-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3, 초판; 서울: 현암사, 2004.
- 최동호 엮, 『정지용 전집 2 산문』, 서울: 서정시학, 2015.
- 崔載瑞 編, 『海外 抒情詩集』, 京城: 合資會社 人文社, 193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8, 6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한기형·이혜령 엮, 『염상섭 문장 전집 III 1946-1962』, 서울: 소명출판, 2014.
- 韓黑鷗, 「孝石과 石薰」, 『人生散文』, 一志社, 1974.

- 해경궁 흥씨 저, 정별설 주석, 『원본 한중록』, 1판 2쇄; 과주: 문학동네, 2010.
- 황수남, 『최정희 문학 연구』, 서울: 문예운동사, 2012.
- 黃忠基, 『校注 海東歌謠』, 國學資料院, 1994.
- 宮島新三郎 譯, 「人生論」, 『トルストイ全集』, 第六卷, 東京: 春秋社, 1919.
- 坪内逍遙譯, 『ゼニスの商人』, 新修シェークスピア全集, 第15卷, 東京: 中央公論社, 1933.
- トルストイ, 宮島新三郎 譯, 『人生論』, 五版: 東京: 春秋社, 1923.
- 原 久一郎 譯, 『大トルストイ全集』, 第十五卷, 東京: 中央公論社, 1939.

3. 논문

- 강호정, 「양주동의 「近古東西奇文選」을 통해 본 『문장』의 미의식」, 『어문론집』, 43, 중앙어문학회, 2010. 3.
- 金晋郁, 「松江鄭澈詩文學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2003. 2.
- 김한식, 「『백민』과 민족문학-해방 후 우익 문단의 형성」, 『상허학보』, 20, 상허학회, 2007.
- 서승희, 「국민문학 작가의 해방 이후 글쓰기 전략 연구-이무영, 이석훈, 정인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3, 한민족문화학회, 2013.
- 申妮三, 「李石薰 文學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2014. 8.
- _____, 「해방기 이석훈 연구」, 『인문연구』, 77권,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8.
- 이상경, 「1931년 ‘배화(排華) 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 제11집, 만주학회, 2011.
- 이종호, 「해방기 염상섭과 『경향신문』」, 『구보학보』, 21집, 구보학회, 2019.
- 鄭尙均, 「金天澤 研究」, 『論文集』, 서울시立大學校, 1988.
- 조용훈, 「투르게네프의 移入과 影響-「散文詩」를 中心으로-」, 『西江語文』, Vol.7 No.1, 서강어문학회, 1990. 7.

4. 기타(기사, 블로그, 누리집)

- 백승찬, 「초대 논설주간 정지용」, 『경향신문』, 2016. 1. 15.
(https://www.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601152204215)
- 안대희, 「가슴으로 읽는 한시 오동나무」, 『朝鮮日報』, 2017. 4. 2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8/2017042803324.html)
- 이승하, 「러시아의 시인 투르게네프가 우리 시에 미친 영향」, 『이승하 : 화가 몽크와 함께 이후』(Daum 블로그), 2018. 1. 3.

(<https://blog.daum.net/poetlsh/6941762>)

이기환, 「한글 홍길동전이 허균 작이 아닌 5+1가지 이유…400년전 다른 한문 홍길동전까지 발견됐다」, 『경향신문』, 2019. 4. 24.

(https://www.khan.co.kr/print.html?art_id=201904241415001)

임현영, 「가장 문학적인 명칼럼」, 『교수신문』, 2006. 5. 2.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9657>)

정민호 엮, 「애송(愛誦) 한국시조300선 愛誦時調300選-이해와 감상」, 『정민호 문학서재』(Daum 카페), 2012. 9. 20.(<https://cafe.daum.net/jmh6853/FCnv/1>)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https://www.hangeul.go.kr/main.do>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누리집 <http://www.riss.kr/libproxy.dankook.ac.kr/index.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http://encykorea.aks.ac.kr/>

두산백과 누리집 <https://www.doopedia.co.kr/>

<Abstract>

A Study on Lee Seok-hoon's Literature in the Period of Liberation

– Focusing on the Literary Appreciation Reading Book Compiled
by Lee Seok-hoon

Shin, Mi-Sa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and reveal the Literary Appreciation Reading Book compiled by Lee Seok-hoon in 1947, as part of the study to understand his literature in the period of liberation. Lee Seok-hoon published this book to provide literary aspirants with a literary guidebook. However, by extension, I, as a researcher, consider that this book was published, since Lee Seok-hoon had a mind to atone for his pro-Japanese history and perform a public duty as a good writer for development of literary circles of the Joseon Dynasty. Accordingly, this book reveals Lee Seok-hoon's more active attitudes in life starting to write under his real name after 1947, while he lived under an assumed name until 1946 directly after liberation.

This book was compiled according to two rules. One was to include not only modern literature but also classical literature and even overseas works, which could serve as models, if possible. That's why this book contains works of 'generally' excellent quality under diverse genres of literature. For instance, this book introduces Kim Jin-seop and Lee Tae-joon's essays as examples of influence of Western and Eastern cultures on writing styles, 「Hanjungrok」 and Dogangrok」 as classical examples of Hangeul literature (especially Naeganche literature) and

Chinese-character literature (diary and travel essay), and various genres of novels written by Hong Myeong-hee, Choi Nam-seon, Lee Gwang-su as well as by Kim Dong-in, Yeom Sang-seop, KAPF writers and historical novelists evenly to strike a balance of the reading book. Another rule was to add suggestion-level comments to help readers' appreciation.

The analysis of this reading book demonstrates Lee Seok-hoon's literary appreciation plans, his attitudes in life after liberation and his hidden political conception of the time.

The reading book published by Lee Seok-hoon was republished in the form of 'revision'(1948) and 'additional revision'(1955) respectively afterwards. Some of works included in the 'first edition' disappeared from the 'revision' and most of them eliminated belonged to writers, who defected to North Korea. The comparison among editions of the Literary Appreciation Reading Book compiled by Lee Seok-hoon needs to be studied further.

Key words: Period of Liberation, Literary Appreciation Reading Book, Baekminmunhwasa, Definitive Edition, Revision, Additional Revision, Literary Aspirant, Munjangbonggong, Model, Munjang, Kyunghyang Shinmun, Yeojeok, Jeong Ji-yong, Yeom Sang-seop, Shakespeare, Turgenev, Tolstoy, Defection to North Korea

투 고 일 : 2021년 11월 25일

심 사 일 : 2021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21년 12월 23일